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 산업

제 1182 호
(2025년 6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장, KBS라디오 <한민족 하나로> 인터뷰 / 04
- 협회장,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좌담회 참석 / 05
- 협회, IUU어업 예방 등을 위한 선사 방문교육 실시 / 06
- 2025년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 / 07
- 협회, 감천항 사설 경비원 배치 관련 회의 참석 / 07
- 대양 품는 국가전략, 원양산업이 중심에 서야 / 08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10



이달의 요리

- 참치마요 햄 무스비 / 17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8
 - 6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10달러
- 참치어업 동향 / 19
 - 동부태평양 1분기 황다랑어 어획량 급증

- 日 4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가격 상승세 / 20
- 日 2025년 4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 21
- 태국 1분기 통조림 수출, 美 수요 힘입어 증가 / 22
- 타이유니온 자사라벨 참치 매출, 1분기에 타격 / 23
- EU 2024년 참치 통조림 수출량, 2023년과 비슷 / 24
- EU 2024년 냉동 참치 원어 수입량 회복 / 25
- 미-중 무역 전쟁, 상호관세 인화로 완화 / 26
- 태국 “美 참치 무역 유지 위해 무역흑자 줄일 것” / 26
- 태국 기업, 참치 미국 수출 감소 우려 / 27
- 中, 태평양 국가에 외교 공세 / 28
- 태국 Sea Value社 매출 신기록 수립 / 29
- EU 대서양 선단, 아시아 선단 확대에 인하여 감소 / 30
- 소말리아, IOTC 신규 쿼터에 이익제기 / 31
- 美 시장 MSC 참치 수요 급증 / 32
- 英, 2023/24 MSC 참치 제품 최대 시장 / 33
- 美 상원에 남태평양 참치조약 개정안 이송 / 34
- 스페인 기업 “트럼프 관세, 성장 기회일 수도” / 35
- 美-EU-아프리카 국가, IUU 대책 합동작전 추진 / 36
- 日 마루하 니치로社, 4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 37
- 호주 최대 참치 선사, 참치 투명성 서약 동참 / 39
- 베트남산 참치 중등 수출, 난관 속에서도 성장세 / 40
- 과학자, 전 세계적으로 오메가3 섭취 부족 확인 / 40

원양산업 제1182호	발행 등록일자 등록번호	2025년 6월 15일 1981년 8월 27일 서초-라00012
	발행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편집인	김영규

Contents

■ 오징어업 동향

- 페루 훔볼트 오징어 어업 회복세 / 41
- 中, 국가 R&D로 오징어채취기 집어등 연구 지원 / 41
- 세계 두족류 시장,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직면 / 42
- 칠레 1~4월 오징어 어획량, 전년 대비 48% 증가 / 43
- 日 냉동 오징어류 2024년 수입 통계 발표 / 43
- 포클랜드 로리고 오징어, 첫 어기 종료 / 44

■ 명태어업 동향

- 러 명태 협회장, 새 계획 밝혀 / 45
- 알래스카 명태 업계, 인도 시장 연육 수출 추진 / 46
- EU 냉동 수산업계, 러 제재와 美 무역갈등으로 시면초가 / 47
- 4월 한국 명태 수입량 급감 / 48
- 아메리칸 씨푸드, 알래스카 명태 협회 탈퇴 / 48
- 러시아, 필렛과 민스 공급 증가 / 49
- 러, 5월 19일 시점 약 194만 톤 어획 / 50
- 日 알래스카산 명태 연육 B사존 수입 가격, 상승 예상 / 50
- 2024년 명태·대구 등 세계 무역량 감소 / 51
- 생선의 냉동은 나쁜가? - 냉동 명태의 이점 / 51

■ 콩치어업 동향

- 日 선사, 콩치붕수망-참치연승 겸업으로 효율화 모색 / 52
- 日 콩치 어선 빨강오징어 겸업 시험조업, 2차 개시 / 53

■ 각국 수산 동향

- 포클랜드 이빨고기 수출업체, 대체 시장 모색 / 54
- 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 / 55
- 법원이 제동 걸었던 美 상호관세 계속 부과 / 56
- 美 법원,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 57
- 中 언어 시장 잠재력, 생각보다 훨씬 커 / 58
- 中, 세계 최초의 연어 양식 선박 건조 / 59
- 러시아 어업 회사, 처음으로 EU 제재 직면 / 59
- 中, 유엔 항만국조치협정 가입 / 60
- 러시아와 오만, 어업 협력 강화 / 60
- 칠레 수산물 수출 급증 / 61
- 中 영양 목표, 수산물 성장 기회 창출 / 62
-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 간소화 위한 협의 시작 / 62

쉬어가는 난

- 어부 - 김종삼 / 63

국내 수산 정보

- 5월 오징어 국내 동향 / 64
- 5월 명태 국내 동향 / 66
- 정부, 美 관세·비관세 대응 협력 / 68
- 글로벌 참치통조림 산업 구조와 한국의 과제 / 69
- 국제기구 활용 방안 - 정일정 참사관 / 69
-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입 동향 / 70
- 2024 세계 식량 통계 연감 / 70

협회장, KBS라디오 <한민족 하나로> 인터뷰 원양산업 역사 및 중요성, 협회 역할 등 설명



김영규 협회장은 KBS 라디오방송 <한민족 하나로>에 출연하여, 원양산업의 역사 및 중요성과 함께 협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민족 하나로>는 KBS가 운영하는 대북방송 겸 한국어 국제방송인 'KBS 한민족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구촌 한민족의 소식과 그들의 역할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 역할을 통해 한민족의 전통과 자긍심을 깨우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인터뷰 및 제작은 5월 27일 KBS 방송국 본관에서

진행되었다. 본 방송은 6월 15일 20시 KBS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될 예정이다.

협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협회의 역사, 활동, 역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현황 및 국제적 위상 ▽ 원양산업이 겪는 어려움 및 정부 지원 필요성 ▽원양어업에 대한 기초적 제반 지식 ▽현 국제정세가 원양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우리 원양산업의 역사 및 원양산업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 ▽라스팔마스 등 원양선원 및 해외 교민의 기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원양수산물물의 이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협회장,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좌담회 참석

한국수산경제신문사 주최 수산·어촌정책 좌담회



김영규 협회장은 지난 5월 20일 한국수산경제신문사가 전국수산단체장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제 21대 대선 후보자에게 바란다' 수산·어촌정책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해당 좌담회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수산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산 관련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수산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한국수산경제신문 탁희업 편집국장,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증연합회 문

승국 회장, 전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윤준열 회장,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오근호 회장, 한국김산업연합회 최봉학 회장,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이광수 전무, 한국수산업경영인증연합회 하두식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하였다.

협회장은 "국내 수산물 생산량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원양어업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위하여 친환경 원양어선 건조지원 확대,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 증액,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협회, IUU어업 예방 등을 위한 선사 방문교육 실시

선사 방문하여 각종 유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등 설명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11일 선사를 방문하여 IUU 어업 예방 등을 위해 주의 또는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문교육은 11일 대해수산, 동원수산, 한성기업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 일정에 선사 측에서는 대해수산 설인수 이사 외 2명, 동원수산 문승민 대리 외 3명, 한성기업 박수용 과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

서는 해외협력1부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협회는 연안국 EEZ 경계선 침범 유의 및 준법조업 안내, 외국인 선원 인권 관련 준수사항 설명, 부수어획 보고 및 기록·취급 방류 가이드라인 안내, 읍서버 관련 사항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또한 RFMO 선박 등록 및 허가 정보 업데이트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협회는 교육과 함께 선사 측의 각종 질의 및 문의에 대한 응답 및 후속조치 등을 진행하였다.

2025년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

해수부 장관 등 해양수산 관계자 약 500명 참석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개최된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바다의 날(5월 31일)'은 바다가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 역사·문화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는 '30년의 도전, 바다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 온 한강에서 바다와 함께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조명하였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이 참석하였다.



협회, 감천항 사설 경비원 배치 관련 회의 참석

감시원 배치 완화 건의 관련 후속조치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0일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천항 요주의 선박 사설 경비원 배치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부두 접안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제5호에 따라 사설 감시원을 배치토록 하는 사안과 관련한 업계와 협회의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항만기록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측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경영지원본부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감시원 배치 완화 건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배치 완화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양 품는 국가전략, 원양산업이 중심에 서야 제도 혁신·글로벌 협력이 해법...정부·업계 공동 대응 절실

2007년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원양어업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수산식량기지 확보를 목표로 여러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17년 동안 4차례의 ‘원양산업종합계획’이 수립됐으며 그 결과 원양어선 안전 펀드가 1,70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총 7척의 신규 선박이 건조됐다. 또한 태평양, 인도양, 남극 수역의 국제(수산)기구 의장 및 부의장을 배출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원양어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 수산자원의 약 30%가 과잉어획 상태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국제 규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후 어선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 인력 부족, 국제규범 강화와 같은 3대 위기에 원양산업을 위한 전략적 대책이 절실하다.

탄소 규제 대응 위한 지원 강화

원양 선사의 탄소 규제 적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4년 본격 시행된 몬트리올 의정서 키칼리 개정안은 어선 냉동시스템의 핵심인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며 2030년까지 자연냉매 전환을 의무화했다. 특히 GWP(지구온난화지수) 1,500 이상 냉매의 2026년 전면 사용 중단은 노후 원양어선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국내 원양어선의 80%가 30년 이상 노후 어선

이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한계 경영에 직면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냉동시스템의 개조 비용은 선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 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저리 용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냉매 교체 및 시스템 개조 등 친환경 설비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추진이 필요하다. 더불어 선박용 암모니아 냉동기의 국산화, 기존 HFCs 설비와 자연냉매 호환성 개선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원양어업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필수 인력 부족으로 출항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양어업의 인력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모색돼야 한다. 국내 인력 유입의 한계를 직시하고 상선과 같이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허용하는 방안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국내 해기제도와 구분해 외국 해기 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계 고등학교-원양선사-정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양업계는 수산계 고교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야 한다. 예를 들어 수산계 고등학교-원양선사간 MOU를 체결해 학교에 가칭 '원양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직업 체험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원양선사 취업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가칭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원양어업 인력 정책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 정부는 수산분야 취업 준비 지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기존 해기사가 상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야간 및 휴일에도 학습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만은 수산개발기금을 조성해 청년의 수산업 취업을 장려하고 원양선사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참고해 국내 원양어업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 통상협상 국제규범 대응

셋째, 한·미 통상협상에 대비한 원양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 한·미 관세 협상의 막이 올랐고 우리나라 원양업계는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협상에 비관세조치를 포함해 국내 수산업의 불공정 노동 관행과 고래 등 해양생물 보호 노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이미 개선된 법률 및 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원양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양어업을

둘러싼 국제규범 변화에 대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UN BBNJ 협정의 채택으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내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FAO 41 해구의 지역 수산기구 설립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업국으로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제규범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개발원조 활용 어촌개발

마지막으로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와 국제 공해 규제 강화로 인해 현지 합작 법인 설립과 가공수출 시설 구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해외 투자와 수산자원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요 어장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어촌 개발, 교육 훈련, 어항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어업 쿼터와 입어로 혜택을 얻는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산신문, 2025년 5월 5일자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프랑스, 세네갈 점유지 반환

- 프랑스는 과거 식민 통치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소탕 등을 명분으로 세네갈에 병력을 파병하였다. 지난 2025년 2월 28일 양국 정부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5월 15일 다카르 항구에 위치한 '콩트르아미랄 프로테' 점유지(군사기지)를 세네갈 측에 반환하였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580
	3.4~10kg	1,480
	1.8~3.4kg	1,380
	1.5~1.8kg	1,230
	1.5kg 미만	1,030
눈다랑어	10kg 초과	1,230
	3.4~10kg	1,230
	1.8~3.4kg	1,230
	1.5~1.8kg	1,080
	1.5kg 미만	880
가다랑어	3.4kg 초과	1,430
	1.8~3.4kg	1,380
	1.5~1.8kg	1,230
	1.5kg 미만	1,03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520	'25.5.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2025 KOSOPFF 개최

-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제9회 한·남태평양 수산 포럼(KOSOPFF)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포럼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현지에서 열리며, 한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간의 수산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포럼은 '회고', '현재', '미래'를 주제로 5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수산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IUU 어업 방지 △노동 환경 개선 △기술 협력 등의 의제를 다뤘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접점 형성과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하였다.

나. 해상안전 규정 개편

- 피지 해상안전청(MSAF)은 선박 노후화를 방지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재도입할 예정이다.
- Joeli Cawaki 청장은 이러한 개혁이 국제 안전 기준



을 따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 책임이 선장과 기관장에게 집중된 기존 체계를 개선해 해운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중국 간 협력 강화

- 피지가 중국-태평양 외교장관 회의에서 무역, 개발, 보건,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피지 전역에 깨끗한 물과 전기 공급을 포함한 200개 소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7개의 의료팀 파견도 계획 중이다. 이 협력은 피지의 지역 외교와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라. 참치 수출 확대 계획

- 피지가 잠정적 경제동반자협정(IEPA)의 글로벌소싱 조항을 활용해 참치 수출을 확대하려 한다. 이 조항을 통해 피지는 냉동 참치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유럽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할 수 있다.
- Shaheen Ali 무역부 상임차관은 이를 통해 피지가 수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고용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인 PAFCO는 EU 규정 준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EU도 피지의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100	로인가공용(PAFCO)

바.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392	'25.6.9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정부, 항만 현대화 선언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전국 어항의 운영과 관리를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현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하여 항만을 수산업 생산 및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비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항만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80	'25.6.3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1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3~0.5톤을 어획하여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나. 미국령 태평양 어장 재개

- 참치산업은 아메리칸사모아에서 민간 일자리 83%와 수출의 99%를 차지하며, 미국에서 유통되는 참치 통조림 4개 중 1개가 아메리카사모아산일 정도로 그 비중은 크다.
- 미국령 태평양 어장 조업이 재개되면서 아메리칸사



모아 정부는 참치 산업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 보호 기준을 유지한 채 어업 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아메리칸 사모아 정부는 참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면서도 환경 보존과 국제 수산 규제를 준수하도록 미국 연방 정부와 협력을 통해 어장 운영 방안을 설정하였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2.71	'25.6.8

업과 마오리 공동체의 전통 식량 자원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기술을 도입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단체도 전문 다이버를 동원해 모니터링과 조기 대응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김정통삼치	2L	2,000
	L	1,950
	M	1,8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861	'25.5.2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외래 해조류 해양 생태계 위협

- 뉴질랜드 베이 오브 아일랜드 지역에서 침입종 해조류(Caulerpa)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해조류는 그레이트 배리어 아일랜드에서 처음 발견된 뒤, 현재 패로아 베이 해안 30미터에서 300미터 구간에 최대 15cm 두께의 두꺼운 해저층을 형성하며 토착 해조류를 포함한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 경제적으로는 베이 오브 아일랜드 해양 산업에 최대 94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우려되며, 현지 어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영국과 차고스 주권 협정 체결

- 모리셔스와 영국은 2025년 5월 22일 차고스 군도와 디에고 가르시아 영토에 관한 중요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영국은 차고스 군도 전체에 대한 모리셔스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 권한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영국은 차고스인 신탁기금으로 4천만 파운드를 출연하였고, 2027년 말까지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모리셔스에 대한 재정적 보상으로 초기 3년간 매년 1억 6,500만 파운드, 이후에는 매년



1억 2,000만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5년에 걸쳐 매년 4,500만 파운드의 개발 자금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모리셔스와 영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해양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나. 日, 해양전시관 개보수 지원

- 2025년 5월 19일, 일본 정부와 JICA가 지원한 모리셔스 알비온 수산연구센터 내 해양 생물다양성 전시관이 개보수되어 개관하였다. 전시관은 산호, 맹그로브, 해초, 멸종위기 해양종 등을 주제로 해양 보전과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한다.
- 일본 대사와 모리셔스 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보수가 미래 세대의 해양 인식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수산업 발전, 연구센터 건립, 유조선 사고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리셔스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다. 러-모리셔스 간 협력 강화

- 러시아와 모리셔스가 농업, 수산, 해양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농업부 장관 옥사나 루트는 모리셔스를 방문해 아빈 볼렐 수산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 양측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재확인하고 회담 후 포트루이스에 정박 중인 러시아 훈련선 크루젠스테른호를 함께 방문하였다. 볼렐 장관은 기술 교류 역사를 강조하며 국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라. 美 관세 대응 전략 마련

- 미국이 모리셔스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모리셔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교·지역통합·국제무역부 장관 다난자이 람풀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앙골라에서 열리는 미-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부는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의 추진 ▲AGOA 수혜국 및 아프리카연합 워싱턴 대표부와의 공동 전략 수립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교역 안정성 확보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협정 제안을 전달했으며, USTR은 긍정적인 회신을 보냈고, 조만간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 정부는 관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물가, 성장률, 무역, 금융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GDP 성장률은 3.0~3.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연말 물가상승률은 3.5%로 전망되었다. 총리는 금융 안정성에는 위협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Shell	MGO	785	'25.6.10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노동자 파업, 전국 확산

- 아르헨티나의 주요 항구 도시에서 어업 노동자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상공회의소는 높은 임금과 비효율적 생산량으로 국제 시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30% 임금 삭감을 추진하였고, 이에 노동자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였다.

- 마르델플라타에서는 항만과 어업 노조가 대규모 행진을 벌이며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푸에르토 마드린에서는 부두 접근을 차단하고 도로를 봉쇄하며 임금 삭감 시도를 거부하였다. 푸에르토 데세아도에서는 노동자와 주민이 연대해 어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였다.
- 얼마 전부터 선박 보유기업은 가공을 포기하고 어획한 생선을 원어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노조의 개입과 낙후된 노동 서비스, 상승하는 가공 비용 등으로 아르헨티나 기업은 위기에 처해있어, 이제는 기업도 반발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일렉스 오징어 조업 종료

- 국립수산업연구개발원(INIDEP)은 최신 과학 데이터에 따라 2025년 6월 10일부로 아르헨티나 오징어 (*Illex argentinus*) 조업 어기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어기 동안 아르헨티나 채낚기 조업선은 총 16만 2,154톤을 어획하였으며, 주요 어획지는 44°S 이남이었다.
- 오징어 트롤 조업선은 2만 839톤을 어획하였고, 생물학적 분석 결과 암컷은 대체로 미성숙 상태였고, 자원 보존을 위해 어획 중단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어업연방위원회(CFP)는 만장일치로 오징어 조업을 종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조하였다.

다. 인신매매 방지 위한 의정서 발표

-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PNA)는 국가안보부와 협력하여 외국 어선에서의 인신매매 예방 및 탐지를

위한 새로운 의정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인권 보호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며, 인신매매 조사국, 연방 검사 및 보안부 전문가 등의 참여로 작성되었다.

- 의정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 국내 인신매매법, ILO 협약 188조 등을 기반으로, 공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신매매를 감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이 문서는 기존 규정을 보완하며 항구 진입, 불법 조업, 의료 후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승무원의 상태와 근무 조건을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라. 中, 오징어 어업의 기술 혁명 주도

- 중국 정부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인공 지능(AI)과 첨단 조명 기술을 통합하는 야심 찬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어획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상하이 해양 대학이 주도하며, 중국 국가 핵심 R&D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 채낚기 선박에 설치된 스마트 광센서는 오징어를 유인하는 광도 수준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AI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한 조명 관리와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비목표 어종의 유입을 줄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 기술은 중국이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모델로 전환하며 오징어 어업의 글로벌 기술 리더로 도약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150	'25.6.10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난파선 제거 관련 법률 시행

- 가나 해양청(GMA)은 당국의 허가 없이 난파선 잔해를 제거하거나 소지한 개인들을 체포하고, 해상에서 철제 부품을 압수하였다. 해양청장 Kamal Deen Ali 박사는 난파선이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무단 제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해당 지역을 잘 규제된 안전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위반자에게는 압수와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나. 어업 모니터링 개선 방안 논의

- 가나 서중부만 어업 위원회(FCWC)와 서아프리카 태스크포스(WATF)는 가나 수산청(FC) MCS 부서의 후원 아래 3일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PSMA 이행, 위험 평가 부서 설립, 기관 간 협력 강화, VMS 통합, 어선 기록 구축 등의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 워크숍은 정보 공유 부족, 협력 미흡, 표준 운영 절차(SOP)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SOP 개발과 Vessel Viewer 앱 활용 실습을 포함하였다. 참가자들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운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 가나, 타국과 수산업 협력 강화

- 가나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열린 제11차 ATLAFCO 전문가 회의와 모로코 라바트 대서양 아프리카 국가 고위급 포럼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블루 이코노미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가나 대표단은 어업 감시, 항만 검사, 어선 기록 등 핵심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며 해양법 집행과 IUU 어업 퇴치, 과학적 정책, 데이터 공유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 Emelia Arthur 수산장관은 협력적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 과학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국 대사와 어업법 개선, 오염 관리, 인프라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의 PSMA 가입은 가나 지속 가능한 어업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200
	10kg 이하	1,760
가다랑어	3.4kg 초과	1,500
	1.8~3.4kg	1,450
	1.5~1.8kg	1,300
	1.5kg 미만	1,150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750	'25.5.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관

가. PNG 수산물 수출 동향

- 새우는 2024년 10월 이후 일본 수출 금지 상태다. 엔화 환율 상승, 에콰도르산 양식 새우 공급 과잉, 인도네시아 자연산 새우 조



업 재개로 인해 PNG 새우의 일본 시장 입지가 약화하였다.

- 바닷가재는 중국 수입 금지로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과잉 공급 문제와 함께 호주 산업 몰락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 중이다.
- 건해삼은 2021년부터 금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불법 조업이 성행해 중국으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불법 해삼 거래는 PNG에 큰 피해지만 행정·정치적 문제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머드크랩은 2021년 이후 수산청 주도로 수출 품목으로 성장해 연 천 톤 이상 공급되고, 중국에 직접 수출되며 가격은 kg당 15~35달러다. 중국계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나, 남획 우려가 크다.

나. PNG 수산업 현황

- PNG 수산업은 노후화된 조업선과 전문 선원 양성의 부재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평균 40년 이상의 조업선은 유지비 증가와 조업 능력 하락을 초래하며, 활어선을 포함한 현대적 어업 장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선원 양성 또한 의지 부족으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 정부의 지도력 부재는 이러한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 수산업 정책은 무지한 공무원과 정치인의 관리하에 방치되어 있으며, 체계적 발전 가능성은 작다. 특히, 중국인의 무분별한 진출은 자원의 고갈과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고, 자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방관하며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PNG 수산업은 구조적 문제와 외부 요인에 의해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718	'25.6.8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



참치마요 햄 무스비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참치 1캔(100g), 햄 200g, 현미밥 200g, 김밥김 1장(1/2 잘라 사용), 체더치즈 18g(1장), 피클 1개, 청양고추 1/2개, 홍고추 1/2개
- 양념: 마요네즈 30g,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참기름 3g, 참깨 2g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햄을 50g씩 잘라 노릇하게 구워 준비한다.
- ② 참치, 마요네즈, 피클, 홍고추, 청양고추와 버무려 준비한다.
- ③ 현미밥을 소금, 후추, 참기름, 참깨와 버무려 준비한다.
- ④ 무스비 틀에 반으로 자른 김을 깔고 밥 → 햄 → 슬라이스 치즈 → 참치 필링 → 밥을 넣고 김으로 말아 완성한다.



6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10달러

6월 11일 기준 620달러

6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7.80달러, WTI 가격은 68.15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69.77달러를 기록하였다.

6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20달러로 5월 9일(599달러) 가격 대비 약 4% 상승하였다.

6월 평균(6.2~6.11) 가격은 610달러로 전월 평균 가격인 602달러 대비 약 1% 상승하였다. 전년 6월 평균보다 16% 하락하였고, 전전년 6월과 비교하면 14%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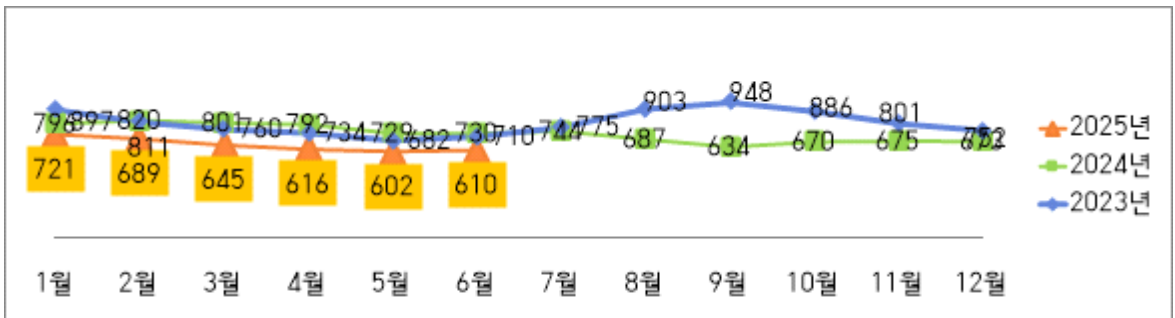
2025년 평균(1.2~6.11) 가격은 651달러로 전년(1.2~12.31) 평균 대비 11%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

균 대비 19%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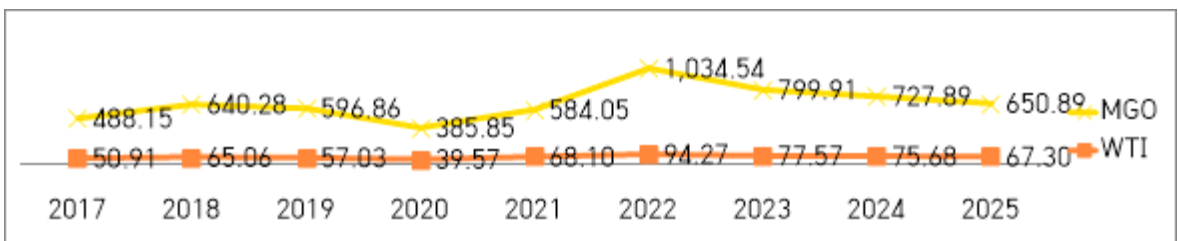
5월 말 들어 국제 유가는 OPEC+의 증산 가능성의 영향, 미국 신용등급 하락, 관세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6월 첫째 주 국제 유가는 미-중 무역긴장 완화, OPEC+ 증산 동결, 북미 원유생산 차질, 러-우 갈등 심화 등으로 일시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였다.

그러나 6월 중순 국제유가는 13일 새벽 이스라엘군 이 이란 핵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규모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하루 만에 5% 이상 상승하는 등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동부태평양 1분기 황다랑어 어획량 급증 전년도 대비 70% 증가

올해 1분기(2025년 1~3월) 동부태평양에서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황다랑어 어획량은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가 어획량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IATTC 최신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동안 동부태평양에서의 전체 참치류 어획량은 25만 1,050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다랑어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전례 없는 어획량을 기록하였던 2024년 1분기와는 달리, 올해 1분기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6% 감소한 12만 5,655톤이었다.

반면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어획량은 각각 10만 8,762톤(전년도 동기 대비 70% 증가), 1만 3,102톤(124% 증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IATTC가 어획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로 황다랑어 어획량은 5만 1,000톤에서 7만 8,000톤 사이를 오갔다. 1월 중순에 끝난 두 번째 연간 금어기(veda)는 어획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동부태평양 최대 선단을 보유한 에콰도르의 어획량은 좋은 시작을 보였다. 에콰도르 선단의 1분기

어획량은 11만 8,589톤으로, 전년도 1분기 대비 약 9% 증가하였다. 2024년 동부태평양에서 최대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한 에콰도르 선단은 올해에도 어획량 1위 자리를 유지하였다.

돌고래 세트로 황다랑어를 어획하는 멕시코 선단의 올해 1분기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32%나 증가한 6만 781톤(대부분 황다랑어)을 기록하였다.

파나마 선단의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3만 1,150톤이었다. 베네수엘라 선단은 전년도 대비 69%나 증가한 4,617톤의 어획량을 기록하며 아주 좋은 시작을 보였다.

콜롬비아, 페루, EU(스페인), 니카라과, 미국, 엘살바도르 등 '기타'로 분류된 국가의 어획량은 전부 2만 9,255톤으로 37% 감소하였다.

Skipjack Volume Fell Drastically

EPO Catch Volumes Per Species In M/T Q1

	2023	2024	2025	Diff. %
Skipjack	106,360	169,342	125,655	-26%
Yellowfin	75,130	64,032	108,762	70%
Bigeye	9,825	5,853	13,102	124%
Bluefin	3,399	3,533	2,423	-31%
Others	1,034	629	1,108	76%
Grand Total	195,748	243,389	251,050	3%

Source: IATTC

Powered By Atuna Analyst

* 출처: Atuna, 2025년 5월 27일자



日 4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가격 상승세 kg당 750엔 넘어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 4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351톤(전년도 동월 대비 12% 감소), 수입액 6억 2,100만 엔(1%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8,928톤(9% 증가), 수입액 242억 6,800만 엔(45% 증가), 가공품 수입량 3,593톤(17% 감소), 수입액 29억 6,500만 엔(20% 감소)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의 수입량은 4,812톤(2% 감소)으로,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수입량은 2,958톤(18% 증가)이었다. 5~6월은 예년보다 일본 독항선의 입항 척수가 많고, 지중해 연안국산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 반입도 집중된다. 이러한 반입을 수용할 공간 확보 문제도 있어, 초저온 냉동고의 공간은 여전히 여유롭지 못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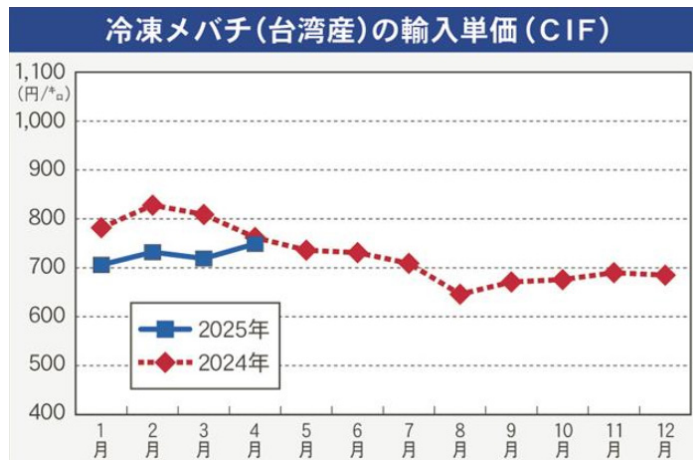
냉동 눈다랑어를 어획하는 인도양 대만선의 평균

가격은 2024년 말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이 kg당 800엔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아직 변화가 없다. 다만 한 관계자는 “원어를 안정되게 확보하기 위하여 수면 아래에서는 웃돈도 있다”라고 전하였다.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의 kg당 평균 단가는 4월 가격인 719엔 대비 상승한 750엔(전년도 대비 2% 하락)으로, 하락세였던 전년도 동월 가격을 추월 직전까지 따라잡았다.

냉동 참다랑어 필렛의 반입량은 4월에 5,056톤이라는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년도에는 5월이 되어야 반입량 5,000톤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에즈 운하를 회피하여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를 택한 것이 원인이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6월 6일자





日 2025년 4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35톤 수입

〈 2025년 4월 일본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025년 1월	2025년 2월	2025년 3월	2025년 4월
날개다랑어	한국	43	87	119	32
	대만	127	38	513	685
	바누아투	-	11	521	174
	기타	287	57	378	362
	소계	458	194	1,531	1,253
황다랑어	한국	131	657	667	318
	중국	259	420	370	461
	대만	767	1,074	1,481	834
	필리핀	-	-	-	-
	인도네시아	-	-	-	-
	미국	-	-	-	-
	바누아투	9	128	24	77
	피지	-	-	-	-
	키리바시	-	-	-	-
	마셜제도	-	-	-	-
	기타	1,128	674	1,484	467
소계	2,296	2,953	4,027	2,157	
눈다랑어	한국	116	131	91	236
	중국	671	750	845	1,202
	대만	1,502	3,146	3,164	2,958
	필리핀	-	-	-	-
	인도네시아	-	-	-	-
	세이셸	1,253	632	1,339	150
	바누아투	71	432	118	55
	기타	138	234	274	212
	소계	3,750	5,325	5,831	4,812
남방 참다랑어	한국	-	-	-	280
	대만	122	155	332	25
	호주	-	-	-	692
	소계	122	155	332	997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6월 6일자



태국 1분기 통조림 수출, 美 수요 힘입어 증가 전년도 대비 약 7% 증가

태국 가공업체의 1분기 수출량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감소한 시장도 있었다.

태국 세관에 따르면 2025년 1~3월 동안 태국의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13만 4,481톤으로 2024년 1분기 대비 9,124톤(7%) 증가하였다. 평균 가격은 톤당 4,200달러로 전년도 동기 대비 톤당 371달러 하락하였다.

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2만 6,986톤으로, 톤당 평균 가격은 3% 하락하였다. 미국의 관세 급등으로 인하여, 수입업체는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제품을 서둘러 반입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물량의 상당수는 타이유니온의 미국 브랜드인 '치킨오브더시'이다.

리비아와 이집트의 수출량은 각각 27%와 51% 증가한 1만 3,396톤, 1만 1,210톤이다. 이집트의 수출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5% 하락한 톤당 2,895달러로, 주요 시장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지난해 중동에서는 태국산 자사라벨(Private

Label, 유통업체나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거나 제조를 위탁하여, 자사의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는 상품) 참치 통조림의 매출이 성장세였으나, 올해 중동에서의 1분기 수출량은 하락세를 겪었다.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량은 29%,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량은 9% 감소하였다. 다만 요르단의 수출량은 156% 증가한 1,603톤을 기록하였다.

이스라엘로의 수출량은 43% 감소하였다. 이는 1분기 태국의 모든 시장을 통틀어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작년에는 이스라엘 수출이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 1분기에는 평균 수출 가격이 4%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감소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전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캐나다와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으로의 수출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호주 시장에 대한 MSC 인증 참치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였고, 주로 날개다랑어 제품을 매입하는 일본 수출량은 4%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19일자

Top Three Markets Increased Sales Compensated Losses

THAILAND: Export Canned Tuna Q1
In M/T Major Destinations, CFR Value per 1 M/T

	2023		2024		2025		Diff.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United States	18,921	\$4,618	22,584	\$4,717	26,986	\$4,561	19%	-3%
Libya	8,699	\$4,001	10,549	\$4,207	13,396	\$3,833	27%	-9%
Egypt	5,461	\$3,208	7,439	\$3,037	11,210	\$2,895	51%	-5%
Australia	8,961	\$4,869	8,535	\$5,336	9,785	\$4,912	15%	-8%
Saudi Arabia	12,038	\$4,204	8,556	\$4,451	7,763	\$3,876	-9%	-13%
United Arab Emirates	6,140	\$4,130	10,513	\$4,683	7,511	\$4,063	-29%	-13%
Japan	7,308	\$5,178	7,114	\$5,507	7,365	\$5,033	4%	-9%
Canada	4,540	\$4,800	6,873	\$5,006	5,254	\$4,674	-24%	-7%
Chile	4,482	\$3,827	2,946	\$3,957	4,653	\$3,770	58%	-5%
Israel	4,147	\$4,257	7,769	\$4,441	4,399	\$4,255	-43%	-4%
Peru	1,614	\$4,500	2,930	\$4,661	2,513	\$4,549	-14%	-2%
Russian Federation	1,773	\$3,884	1,389	\$4,380	2,270	\$4,064	63%	-7%
Switzerland	1,318	\$4,982	1,961	\$5,572	2,181	\$4,913	11%	-12%
Jordan	736	\$3,936	626	\$4,256	1,603	\$3,846	156%	-10%
South Africa	1,253	\$3,884	1,447	\$3,908	1,497	\$3,709	4%	-5%
Others	19,574	\$3,984	24,126	\$4,472	26,092	\$4,150	8%	-7%
Grand Total	106,965	\$4,302	125,357	\$4,571	134,481	\$4,200	7%	-8%



타이유니온 자사라벨 참치 매출, 1분기에 타격 상온보관 부문 매출, 전년도 대비 7.1% 감소

타이유니온의 상온보관 제품 부문(참치 통조림이 대부분을 차지)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유니온의 1분기 상온보관 제품 매출량은 8만 69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7.1% 감소하였다.

타이유니온의 올해 초 실적은 좋지 못하였고, 애완 동물 제품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태국 가공업체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양국 간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타이유니온 생산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온보관 제품의 매출은 147억 6,000만 태국 바트(미화 약 4억 4,147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 대비 14% 감소하였다.

브랜드 제품에 비하여 자사라벨(Private Label, 유통업체나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거나

제조를 위탁하여, 자사의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는 상품) 품목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브랜드 제품 판매 톤수는 전년 대비 0.6% 소폭 증가한 반면, 수출 시장에서는 자사 라벨 참치 통조림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유니온 측에 따르면 매출 감소는 "판매량 감소, 평균 판매 가격 하락, 수익에 불리한 환율 상황의 영향" 때문이다. 비용이 상승하면서 자사 라벨 수입업체들은 관망하는 쪽을 택하였다고 타이유니온 측은 설명하였다.

타이유니온은 중동과 EU 등 주요 시장의 실적 부진이 판매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매입자 측이 매입을 지연시키면서 자사라벨 제품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타이유니온 브랜드 제품으로는 John West, Hawesta, Petit Navire가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15일자





EU 2024년 참치 통조림 수출량, 2023년과 비슷

상반기 호조였으나 4분기 수출 부진

2024년 EU의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1% 증가한 27만 1,340톤으로, 90.4%가 같은 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되었다. 평균 가격은 톤당 6,438 유로로 2023년 가격보다 105유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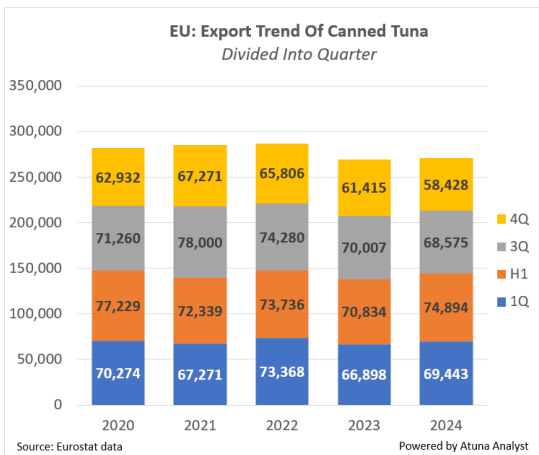
2024년에는 상반기 수출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2023년 동기 대비 부진하였다. 3분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고, 4분기에는 4.9% 감소하였다.

주로 황다랑어 제품을 수출하는 이탈리아의 2024년 전체 수출량은 9% 증가한 3만 2,649톤이었다. 이탈리아의 2024년 4분기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2024년 전체 수출량 증가에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의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4,292톤을 기록하였고, 가격은 7% 상승한 톤당 5,429유로였다.

포르투갈의 수출량은 2만 1,135톤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였으나, 평균 가격은 톤당 361유로가 상승한 6,644유로를 기록하였다. 이들의 수출 물량에는 날개다랑어와 황다랑어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고가의 프리미엄 참치 통조림 제품만을 수출한 것으로 관측된다. 오스트리아의 수출량은 66% 감소한 1,847톤이지만, 가격은 34% 상승한 톤당 6,459유로였다.



스페인의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12만 3,114톤이었고, 가격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톤당 6,535유로의 고가였다.

네덜란드의 통조림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1,511톤 증가한 5만 3,633톤을 기록하였으나, 평균 가격은 톤당 5,412유로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였다. 수출 물량의 대부분은 대형 마트 체인 Aldi와 Lidl 등이 위치한 독일과 프랑스로 향하였다.

Spanish Processors Sold More Canned Tuna To EU Buyers

EU: Export Of Canned Tuna In M/T, Full Year

Divided Into Major Origins

	2022		2023		2024		Diff %	
	M/T	CFR	M/T	CFR	M/T	CFR	M/T	CFR
Spain	119,586	5,926 €	120,381	6,618 €	123,114	6,535 €	2%	-1%
Netherlands	67,507	5,153 €	52,122	5,401 €	53,633	5,412 €	3%	0%
Italy	31,481	7,401 €	29,987	8,285 €	32,649	8,661 €	9%	5%
Portugal	18,699	5,816 €	21,410	6,283 €	21,135	6,644 €	-1%	6%
Germany	16,519	4,333 €	15,265	4,713 €	15,283	4,752 €	0%	1%
Belgium	6,715	5,588 €	7,299	6,081 €	6,292	5,965 €	-14%	-2%
France	6,383	4,997 €	5,246	5,051 €	4,292	5,429 €	-18%	7%
Czech Republic	3,129	5,112 €	3,506	5,422 €	4,148	5,810 €	18%	7%
Austria	8,701	4,979 €	5,462	4,820 €	1,847	6,459 €	-66%	34%
Slovakia	1,556	3,992 €	1,769	4,538 €	1,532	4,541 €	-13%	0%
Others	6,916	6,267 €	6,707	7,051 €	7,416	7,080 €	11%	0%
Grand Total	287,191	5,739 €	269,154	6,333 €	271,340	6,438 €	1%	2%

Source: Eurostat

Powered by Atuna Analyst

* 출처: Atuna, 2025년 5월 21일자



EU 2024년 냉동 참치 원어 수입량 회복

한국산 원어 수입량 129% 증가

유럽 참치 가공업체의 2024년 냉동 참치 원어 수입량은 2023년도 대비 40%나 증가하였다. 남아메리카산과 아시아산 원어 수입이 특히 증가하였다.

EU의 원어 수입 증가세는 2024년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다. EU의 연간 원어 수입량은 하락세였으나 2024년에는 반전하여 16만 2,554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 연간 수입량과 비슷한 수치이다. 그러나 평균 단가는 톤당 2,555유로로 하락하였다.

주요 공급국인 엘살바도르, 파나마, 과테말라(EU가 해당 국가의 선망선단을 보유함)로부터의 수입량은 2024년 초에 좋지 못하였다. 이들 중 엘살바도르산의 연간 수입량만이 증가하였다(9,747톤, 9% 증가).

인도양의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이셸산의 수입량은 57%나 증가한 2만 6,595톤을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황다랑어였다. 세이셸산의 평균 단가는 황다랑어 어가 하락 영향으로 인하여, 15% 하락한 톤당 2,243유로를 기록하였다.

2024년 많은 어획량을 기록한 벨리즈산과 에콰도르산의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2023년에도 2022년 대비 증가하였던 벨리즈산은 2024년 들어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한 1만 599톤의 수입량을 기록하였

다. 평균 단가는 21%나 상승한 톤당 2,543유로로, 물량의 상당수가 황다랑어였다. 에콰도르산의 수입량은 4배나 증가한 1만 554톤이나, 평균 단가는 26% 하락한 톤당 1,981유로였다.

엘살바도르산은 9% 증가한 반면, 파나마와 과테말라산은 각각 69%와 77% 급감하였다. 특히 EU 소유 선단의 황다랑어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필리핀산의 수입량은 5,365톤으로,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다. 한국산의 수입량은 129%나 증가한 6,874톤이었다. 한국 선단은 2024년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어획량 증가로 수혜를 얻었다.

EU 가공업체의 같은 EU산 원어 수입량은 21% 증가한 3만 7,064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2024년 전체 원어 수입량의 23%에 해당한다. 스페인 산의 평균 단가는 톤당 3,218유로로 하락하였으나, 수입량은 5% 증가한 2만 1,419톤을 기록하였다.

2022년, 2023년에 안정적인 수입량을 기록한 프랑스산은 2024년에 48%나 증가한 1만 1,654톤을 기록하였으며, 가격은 톤당 2,547유로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물량의 대부분은 황다랑어였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7일자



미-중 무역 전쟁, 상호관세 인화로 완화

중국산 제품 관세 30%로 인하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2개월간 이어진 무역 전쟁에 제동이 걸렸다. 5월 12일 제네바에서 양국 대표 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악의 사태를 우려하던 중국 통조림 가공업체는 이러한 상황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에 선언한 145%에서 30%로 인하하였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12일 글로벌 주가는 급등하였다. 현재의 관세 인상 90일 유예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영구적인 합의가 아니다. 백악관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상기의 조치를 취한 후 당사국들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중국과 미국 또는 제3국에서 번갈아 가며 진행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양측은 관련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은 주요 시장인 미국에 대량의 참치 통조림과 자숙 로인 등을 수출하는 태국과 베트남 통조림 업체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통조림 가다랑어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는 가장 높은 관세율인 104%가 부과되었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13일자

태국 “美 참치 무역 유지 위해 무역흑자 줄일 것”

대미 무역흑자 약 150억 달러 감축

태국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감축을 원한다고 밝혔다.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재무부 장관은 참치 및 기타 제품에 대해 미국과 “장기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성명은 미국에 수출되는 참치 품목에 부과될 36%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뒤이은 것이다.

피차이 장관은 이번 주 초 방콕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무역 흑자 감축이 언제 도입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감축이 “작년 태국의 미국과의 무역 흑자 460억 달러 중 약 3분의 1 수준”이

라고 설명하였다. 피차이 장관은 정부가 무역 장벽에 대한 우회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은 또한 수출에 대한 원산지 규정 오용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hanintr Chalisarapong 태국 참치산업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EU와의 FTA 협상이 태국에서 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태국은 국가는 참치 및 기타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원어를 수입해야 하며, 새로운 미국 정책은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21일자



태국 기업, 참치 미국 수출 감소 우려

어획량 감소까지 겹쳐 시장 개척 등 신중한 계획 필요

태국 참치산업협회장인 차닌트르 찰리사라퐁(Chanintr Chalisarapong)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현재 제안된 48.5%로 인상되면 태국의 대미 참치 수출이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장은 “관세가 36%에 도달하면 태국 참치 제품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지고 원자재가 경쟁국으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언더커런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대미 수출은 2026년까지 약 50~60% 감소할 수 있다. 36%의 관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태국 수출업체들의 미국 시장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참치 통조림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관세(통합 시스템 코드 1604.14)는 12.5%이며, 10%의 포괄적 상호 관세가 적용되면 총 22.5%가 된다. 7월 9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면 상호 관세가 인상되어 총 관세는 48.5%가 된다.

그러나 HS 코드 2309.10으로 분류되는 참치 기반 애완동물 사료의 경우 미국 최혜국 우대세율은 0%로,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무관세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는 10%의 추가 상호 관세만 적용된다.

회장은 “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36%에서 10%로 낮추도록 촉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였다. “참치 업계는 구매자, 공장, 공급업체 간의 비용 분담 협정을 통해 5~10%의 추가 관세는 감당할 수 있지만, 제안된 관세가 부과되면 2025년 3분기까지 시장 점유율과 수출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다.”

회장은 미국 무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높은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회장은 적응 전략으로 잠재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국은 현재 세계 최대 참치 수출국이다. 트럼프 관세가 없었다면 이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하는 무역 역학 관계에 대응하여 협회장은 잠재적인 외교적 개방에 주목하였다. 그는 “태국이 미국과 제품별 협정, 특히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미국 시장에서 태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장은 또한 EU와 캐나다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EU가 태국-EU FTA 협상을 가속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아세안(ASEAN)과의 FTA 협상을 가속하여 신속하게 타결할 수 있다.”

태국 참치 통조림 산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5년 초에 소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태국은 1분기에 14만 762톤, 5억 9,900만 달러 상당의 참치 통조림을 수출하여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은 5%, 금액은 1%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세계 경제의 회복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수입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비할 목적으로 선주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국 바트화 강세는 태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였다.

특히 태국의 대미 수출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EU로의 수출은 각각 28%, 29%, 38% 증가하였다.

2024년 미국은 태국의 참치 통조림 최대 시장으로, 총 수출액 5억 9,900만 달러 중 1억 4,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24%를 차지하였다.

“시장 상황이 연중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참치 통조림 수출은 2024년에 비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태국수산식품유통협회(TTIA)는 2025년 수출량을 63만 7,426

톤, 금액으로는 27억 5,000만 달러로 예상한다.

한편, 태국은 공급 측면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2025년 1분기에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라니냐 현상으로 인하여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어획량 감소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고 수입량은 4만 5,748톤으로 감소하였다.

협회장은 “2분기에도 어획량 수준이 낮게 유지되거나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조달에 대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5월 30일자

中, 태평양 국가에 외교 공세

11개국과 장관급 회담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급)이 지난 5월 28일 솔로몬제도 등 태평양 국가와 외무장관급 회담을 진행하였다. 왕 부장은 29일까지 예정된 제3회 중국 태평양도서국 외무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여,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한 도서국에 외교적 공세를 진행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는 솔로몬제도 외에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11개국의 외무장관급 인사가 참석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도서국 등의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에 더하여, 공통의 관심사인 국제·지역문제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시진핑 정권은 최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지원이나 치안안전보장 측면의 제후를 통하여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솔로몬제도와는 2022년에 안보협정을, 2023년에는 경찰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안보협정의 내용은 불투명하나, 미국과 호주 등은 솔로몬제도의 중국 군사거점화를 경계하고 있다.

키리바시도 자국에 중국 경찰의 활동을 허가하는 등 대중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 2월에는 쿡제도의 브라운 총리가 방중하여 해저자원 개발협력에 합의하였다.

도서국 지역은 중남미처럼 대만과 수교하는 국가가 많았으나, 시진핑 정권은 이를 갈라놓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는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가, 2024년에는 나우루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6월 3일자



태국 Sea Value社 매출 신기록 수립

美 관세 정책에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 모색

태국 2위 참치 통조림 제조업체인 Sea Value社의 2024년 매출액이 2023년 대비 20% 증가한 1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웠다.

Sea Value의 일반 식용 제품 및 애완동물 식품 부문 매출이 모두 성장하면서 총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다고 Amornphan Aramwatananont CEO는 말하였다.

Sea Value 측은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매출 성장을 노리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CEO는 “올해 4월까지 우리는 목표 달성을 향하여 순항 중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예측하기 어렵다. 원어 가격, 환율 변동, 무역 정책 변동 등 지나치게 많은 불확실성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연간 약 20만 톤의 가다랑어 원어를 취급하는 Sea Value는 세계 최대의 참치 가공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Sea Value는 미국 관세가 10%에서 36%로 인상될 경우의 여파에 대비하고 있다. CEO는 미국 상호 관세 발효 전에 마지막으로 도착할 물량을 5월 말경에 미국 서부 연안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CEO는 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다면 태국 수산물 수출업체가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CEO는 “만일 관세율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태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율이 각국에 다르게 적용된다면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대하여, CEO는 회사가 ‘방어적 전략’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하였다. CEO에 따르면 ‘방어적 전략’이란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지난 6~7년 동안 완료된 기존 자본 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Sea Value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은 3개 공장 중 2곳의 폐수 처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관련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CEO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회사가 지속가능성, 사람, 그리고 환경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더 광범위한 전략의 하나이다.

Sea Value는 해양관리협의회(MSC)가 인증한 어장에서 참치 원어의 약 60%를 조달하고, 이주 노동자와 태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며, CEO가 이사로 활동하는 태국 참치산업협회를 통하여 책임 있는 노동 관행을 장려한다.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EO는 신중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3~5% 성장만 해도 만족스러울 것”이나, “이미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다”라고 CEO는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5월 28일자



EU 대서양 선단, 아시아 선단 확대로 인하여 감소 아시아 선단 60% 증가하는 동안 38% 감소

스페인 냉동 참치 선사를 대표하는 협회인 'Opagac'은 지난 5월 27일 대서양에서 유럽 선단의 참치 어업이 축소되는 현 상황 및 EU가 유럽 참치 산업 보호를 위하여 할 일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Opagac의 훌리오 모론 이사에 따르면, 대서양에서의 EU 참치 어업이 위축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수년간 약 38%의 EU 선단이 아프리카 수역에서의 조업을 중단한 반면, 아프리카 국가의 국적으로 조업하는 아시아 선단의 척수는 60% 증가하였다. 모론 이사는 유럽위원회(이하, EC)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EU 선단의 이익을 대변해서 전통적인 조업 수역인 동부대서양 어장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이후로 다카르와 아비장 항구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고용 창출과 인프라 개발을 유발하여 경제 발전과 참치 자원의 보존에 기여한 EU의 지속가능 어업 모델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Opagac 측은 주장하였다.

모론 이사는 EU 슈퍼마켓에 EU 선단이 어획한 참치 제품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아시아 선단이 대체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모론 이사는 “대서양에서의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아직 남은 소수의 선박도 어획량 부족으로 수익성이 없는 상황이다. 시장 지분이 증가하리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선박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으며,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다”라고 말하였다.

Opagac 측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국적으로

조업하는 아시아 선단에 대한 관리조치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의 FAD 금지 조치가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다. 모론 이사는 금어기 기간이 45일로 감소하였으나 어획량 한도를 감안하면 여전히 지나치게 길며, 또한 EU와 ICCAT의 규제 압력이 선단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세계 참치 무역에 혼란을 가중하고 시장을 경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국 참치 통조림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다른 시장으로의 제품 과잉 공급을 초래하여 가격을 하락시키고 무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Opagac 측은 코스타스 카디스(Costas Kadis) EU 수산해양담당 집행위원이 균형 잡힌 공동 어업 정책을 수립하고 EU 선박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pagac 측은 자율관세할당제(ATQ)에 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카디스 의원의 공개 협의에 환영 의사를 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90만 톤의 수산물이 유럽 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환경 및 노동 기준 없이 무관세로 EU에 유입되고 있다고 Opagac 측은 지적하였다. Opagac은 지속가능성 요건을 ATQ에 연계하면 규제의 일관성, 참치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EU의 식량 주권이 향상될 것이며, 스페인 참치 선단과 가공 산업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28일자



소말리아, IOTC 신규 쿼터에 이의제기

“대규모 선단 보유국에 유리한 조치” 주장

소말리아는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에서 새로 도입한 가다랑어 쿼터 및 전 선단의 눈다랑어 쿼터 15% 증가 조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소말리아는 이러한 조치가 “소말리아의 주권, 어업 개발 목표, 그리고 영세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소말리아는 5월 6일자 IOTC에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가 “환경 또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어획량을 확대해 온 회원국에 압도적으로 이득이 되는 할당 및 감축 원칙”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속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소말리아는 이러한 조치가 자국과 같이 책임있는 수산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들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 서한은 인도양에 대규모 산업형 선단을 투입하는 국가들을 지적하였다. 소말리아는 서한을 통하여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개발도상국의 주권적 권리, 미래에 대한 열망, 공평한 접근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이 이익을 얻고 통제하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소말리아는 2024년에도 IOTC의 어획물 할당 제도를 두고 “해외 단체에 의한 해양 자원의 비규제적이고 무단 착취”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소말리아는 참치 어업이 자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였다. 이들은 또한 자국의 EEZ가 인도양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생산적인 구역 중 하나

로, 주요 참치 이동 경로를 따라 위치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소말리아의 수역은 수십 년간의 분쟁, 불안,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떨어졌다. 따라서 소말리아는 자국 EEZ가 “책임 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4월 종료된 제29차 IOTC 연례회의에서, IOTC는 참치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서는 최초로 가다랑어에 대한 어획량 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모든 선단에 대하여 눈다랑어 쿼터를 15% 증가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말, IOTC 과학자들은 2022년 자원 평가에서 눈다랑어 자원이 남획 상태였다고 평가하였다.

소말리아의 가다랑어 쿼터 반대는 역사적인 어획 편향, 개발 열망의 소외, 형평성 원칙 위반, 미래 접근권 보장 실패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개발 안전장치의 부재, 절차적 공정성 위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모순 등을 근거삼았다.

소말리아의 국적선 중에서는 연승선이나 선망선 등의 산업용 어선이 없다. 이들의 소규모 어선은 자국 EEZ에서 조업한다. 2024년 소말리아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 선단은 2023년 황다랑어 1만 965톤, 가다랑어 5,100톤, 눈다랑어 4,100톤을 어획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9일자



美 시장 MSC 참치 수요 급증

약 4년 만에 68% 증가

해양관리협회의(이하, MSC) 인증 참치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4/25년도에 약 250종의 인증 제품이 미국 소매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MSC 참치 제품의 98%가 통조림 제품이며, 가다랑어는 최다 소비 어종의 자리를 지켰다. MSC는 5월 초 공개한 '2025 참치 시장 분석: 미국편'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American Tuna 브랜드가 2009년 미국에 MSC 참치 제품을 출시한 이후 미국 시장에서의 MSC 참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0/21년 미국에서 판매된 MSC 참치는 1만 7,500톤이었으나, 2024/25년에는 5만 4,500톤으로 68% 증가하면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MSC에 따르면, 미국 판매 MSC 참치의 92%가 가다랑어이며, 날개다랑어가 그 다음이고, 황다랑어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MSC 인증 수산물의 33%가 참치 제품이었다.

미국 시장 최대의 MSC 참치 판매 기업은 Great Value(월마트 브랜드)와 범블비였으며, 대형마트 체인점인 Aldi, H.E.B, Sam's Club 등이 뒤를 이었

다. 월마트, 범블비, 스타키스트는 2025년 말까지 자사 참치 제품의 100%를 지속가능 제품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형 기업들의 이러한 공약은 미국 시장에서 MSC 인증 참치의 비중을 더욱 강화하였다.

Aldi, H.E.B, Meijer, Sam's Club은 자사라벨(Private Label,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제조사에게 주문 생산하여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 제품을 MSC 인증 참치로 조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MSC는 월마트 등의 소매업체가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의 투명성 서약에 조인하면서 참치 어업 관리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MSC 측은 "MSC 인증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으나, 미국은 여전히 앞으로 MSC 인증 참치의 시장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향후 수년간 미국에서 MSC 참치 매출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30일자



英, 2023/24 MSC 참치 제품 최대 시장 23/24년도 매출량 2만 3,500톤...다음해 4만 톤 매출 예상

2023/24년도 동안 영국 시장에서 해양관리협회의(이하, MSC) 인증 참치 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3/24년도 영국 시장에서의 MSC 참치 판매량은 총 2만 3,500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24/25년도에는 이보다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내용이 MSC가 발표한 ‘참치 시장 해설 2025: 영국’에서 공개되었다. 해당 발표의 내용에 따르면, 2020/21년도에 영국 슈퍼마켓에서 MSC 인증 참치 제품의 비중은 전체의 7.5%에 불과하였으나, 2023/24년도에는 38%까지 상승하였다.

2023/24년도(2023년 6월~2024년 6월) 동안 영국 시장에서의 참치 제품 매출량은 총 6만 1,904톤으로, 영국의 전체 수산물 소매 매출량의 16%를 차지한다. 영국 시장에서의 MSC 인증 참치 매출액은 총 4억 2,780만 파운드(미화 5억 7,452달러 상당)이다.

영국에서의 2024/25년도 MSC 인증 참치 제품 매출량은 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MSC는 영국 시장 매출 증대 원인이 인증 제품의 가용성 증가 때문일 수 있으며, 특히 통조림(전체의

79.1%)과 포장주문 제품(13.9%)의 매출 증가를 지적하였다. 그 외 영국에서 판매된 인증 참치 품목으로는 냉장 참치(3.7%), 인스턴트 제품(1.8%), 기타(1.5%) 제품이 있다.

영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참치 어종은 가다랑어이며, 황다랑어가 그 뒤를 이었다. 영국 시장에서의 주요 소매업체로는 Aldi, Asda, Amazon Fresh, Co-op, Lidl, Ocado, Morrisons, Sainsbury's, Tesco, Waitrose, Whole Foods 등이 있다. Sainbury는 참치 통조림 제품의 100%를 MSC 인증 제품으로 채택한 유일한 업체였다.

유럽의 대형 마트 체인점인 Aldi와 Lidl에서의 지난 2년간 MSC 인증 참치의 취급은 증가하였다. 영국 식품 대기업 Princes 그룹은 2022년에 모든 참치 제품을 2025년 말까지 MSC 인증 제품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1년에 같은 공약을 한 Tesco사는 자사 브랜드의 통조림과 포장주문 제품을 통하여 이를 실현시키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23일자



美 상원에 남태평양 참치조약 개정안 이송

통과 시 美 자국 선단 참치 조업 활성화 예상

지난 5월 중순 미국 ‘남태평양참치조약(SPTT)’ 개정안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해당 조약은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으로 이송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은 미국 선단의 자국 EEZ 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SPTT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EEZ 내 미국 선단의 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PTT의 배경〉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의 현재 진행 중인 협정이 이 조약은 미국의 선망선이 해당 도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입어료를 지불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PTT는 1988년에 발효되어 1993년과 2002년에 연장되었다.

2016년 12월,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은 ‘HR 1792’ 조항에 따라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조항에는 미국 선박의 면허 및 준수 요건 변경, 집행 강화, 그리고 형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존 조치 준수 강화,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기술 지원 조항 등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3월, 당사국들은 SPTT를 2033년까지 연장하였으나, 합의된 개정안과 조약 개정안의 공식 채택은 보류 상태였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2024년부터) 동안 매년 6,0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참치 어업 산업이 추가 자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개정안이 이 약속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 환영 의사 표명〉

아메리칸사모아 하원의원인 아우무아 아마타는 SPTT를 발의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해당 안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아마타 의원은 미국 의회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마타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의 참치 협정을 통해, 미국 최후의 원양 어선단인 우리 선단의 운영과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국제적 노력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아마타 의원은 2월에 ‘어업’, ‘폐쇄 구역’, ‘어선’, ‘면허 구역’, ‘지역 약관’ 등 여러 정의에 대한 수정안을 요청한바 있다.

또 다른 발의자이자 미국 하원 자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브루스 웨스터먼 의원은 이 법안이 어업에 대한 규제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현행 양해각서(MoU)를 공식화함으로써 “SPTT의 효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조약이 공해 조업 일수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여러 도서국의 EEZ에 대한 접근을 명문화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이러한 진전으로 인하여, 서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WPFM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 완화 행정명령이 SPTT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놓게 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 기관 책임자에게 법과 행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규정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15일자



스페인 기업 “트럼프 관세, 성장 기회일 수도”

엘살바도르 공장 등 중남미 수출 수혜 예상

통조림 및 수산물을 주요 상품으로 하는 스페인 식품 기업 나우테라(Nauterra, 구 Calvo)사의 엔리케 오르헤(Enrique Orge) CEO는 현재 정치 상황과 무역 상황에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우테라는 미국에 참치를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 오르헤 CEO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태국과 베트남 등 주요 참치 생산국들은 4월 초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자사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오르헤 CEO는 “나우테라는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지 않으며, 이 정책이 나우테라의 엘살바도르 참치 공장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엘살바도르산 제품은 미국 수입 시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물류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미국 고객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가깝고 미국과 엘살바도르의 관계는 상당히 좋기 때문이다”라고 오르헤 CEO는 말하였다.

〈공정 무역을 위한 호소〉

오르헤 CEO는 EU가 제3세계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서 “공정 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EU 참치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 EU-태국 FTA가 포함된다. 오르헤

CEO는 “우리는 그저 동등한 대우를 원한다. 만일 우리(EU 기업)들이 기후 변화 및 노동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사안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EU와 무역을 하는 제3세계 국가들도 이를 똑같이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이며, 우리가 소위 ‘공정 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유럽의 어업 대표 단체인 Europeche는 태국과의 FTA가 EU 참치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스페인 통조림 업계 단체인 Anpanco는 태국과의 FTA가 불공정 무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우테라는 제3세계 국가에서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오르헤 CEO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르헤 CEO는 나우테라가 자사라벨(Private Label, 유통업체나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거나 제조를 위탁하여, 자사의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는 상품) 참치 제품과 경쟁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 성장 중이라고 말하였다. 나우테라는 특히 소비자들의 요구에 힘입어 친환경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26일자



美-EU-아프리카 국가, IUU 대책 합동작전 추진 30개국 이상 참가

미국, EU,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Obangame Express 2025’라는 이름의 IUU 어업 근절 작전을 합동 추진한다. 미 해군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작전이 “참치가 풍부하며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수역인 대서양 기니만에서의 지역별 집행 능력, 법적 협력, 해군력 상호 운용성, 통신 등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 해군 측은 IUU 어업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연안국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특히 기니만에서는 자원 감소 및 참치를 비롯한 수산물의 어획량 보고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서 약 2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미 해군은 주로 중국에서 온 외국 국적 선박이 이 수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선박들이 당국의 집행을 피해서 해외로 수익을 유출한다고 말하였다.

가봉, 가나, 카보베르데, 세네갈을 포함한 31개국이 ‘Obangame Express 2025’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수역에서는 산업용 참치 어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의 로버트 스콧은 “IUU 어업은 아프리카 수역의 공유 어족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라고 말하였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Obangame’는 아프리카 토착어로 ‘연대, 유대’ 등을 의미한다. 첫 번째 ‘Obangame Express’ 작전은 2010년에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15년에는 23개국이 참가하는 등 여러 해에 걸쳐 다수 국가가 참가하였다.

기니만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참치 선단에 대한 공격 사례 등 해적 행위로 악명 높다. 지난 5월 초,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등 이베리아반도 국가 언어를 사용국 간 협력을 도모하는 재단인 국제-이베로아메리칸 공공행정정책재단(FIIAPP)은 이 지역의 감시 작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EU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20일자



日 마루하 니치로社, 4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이빨고기 저연승선, 참치 선망선 등 건조 검토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수산 기업인 일본 마루하 니치로社는 2026년 3월 종료 예정인 회계연도 동안 자본지출 및 인수합병에 약 600억 엔(4억 600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년도에 달성한 역대 기록을 넘어선 1조 800억 엔(73억 달러)의 통합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럽 시장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마루하 니치로는 유럽 지부인 '마루하 니치로 유럽 홀딩스'에 4,0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시푸드 커넥션 홀딩스(이하 Seacon)'에 추가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루하는 북미 냉동식품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Undercurrent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마루하의 유럽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Seacon은 네덜란드 수산물 가공업체 Van Der Lee Seafish Beheer의 발행 주식 70%를 인수할 예정이다.

마루하 니치로는 성명을 통해 거래 가격은 비공개이며, 5월 14일에 서명하고 5월 27일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루하 니치로는 또한 아시아 식품에 특화된 네덜란드 도매업체인 '킹피시 셀렉션(이하, KFS)'의 지분을 51%에서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KFS는 2022년 3월에 마루하 니치로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식품 서비스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KFS의 최대 시장은 독일이다.

마루하 니치로는 무기물 제품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미세조류 유래 DHA 사업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마루하 니치로는 작년 6월 캐나다의 '마라 리뉴어블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마루하 니치로 대변인은 회사가 조류 유래 DHA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태국에 합작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루하 니치로의 북미 냉동식품 시장 진출은 뉴저지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인기업인 '해피(Happi Co, 이전 명칭 Wafle Wafle)'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변인은 밝혔다. 해피는 해피푸드(Happy Foodi) 브랜드를 통하여 소매 부문에서 제품 개발 및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 마루하 니치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어업회사인 '오스트랄'은 '메로'로 알려진 남빙양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저연승 어선 건조를 검토 중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대변인은 또한 마루하 니치로 뉴질랜드도 트롤선 신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 산하기업인 타이요 A&F는 가다랑어 등 다랑어류를 어획하는 원양 선망선 신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 기준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루하 니치로가 측정한 회계연도 기준 환율의 경우, 달러 환율은 158.18엔(전년도 평균 달러 환율 151.44엔)이었



고, 유로화 환율은 164.92엔(전년도 평균 유로 환율 163.8엔)이었다.

마루하 니치로는 2023년 이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알래스카 명태 사업에서 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가격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공식품 부문은 견실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국의 통조림 애완동물 사료 사업은 생산 비용 상승 및 트럼프 행정부 관세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마루하 니치로는 미국 수출의 비중이 2025년 3월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적지별로 보면 마루하 니치로의 미국 자회사 매출 비중은 미국에서 47%, 일본에서 29%, 유럽에서 17%이다.

마루하 니치로는 2026년 3월에 우미오스(Umios)로 사명을 변경하는 비용과 도쿄 본사 이전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 약 50억 엔을 비용으로 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회계연도의 영업 이익은 11% 감소한 270억 엔으로 예상된다.

마루하 니치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3년 동안 150억 엔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쿄에 본사를 둔 마루하 니치로는 2025년 3월로 마감된 회계연도에 통합 매출이 5% 증가하여 1조 790억 엔에 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7년 마루하 그룹과 니치로 주식회사가 합병한 이후 최고치이다. 영업이익은 15%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300억 엔을 기록하였다.

해외 매출은 17% 증가한 2,795억 엔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해외 매출 비중이 23.2%에서 25.9%로 상승하였다. 미국 매출은 33% 급증하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각각 13%, 9%)을 앞지르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 국내 사업의 영업이익은 164억 엔, 해외 이익은 140억 엔이며, 경상이익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늘었다.

부문별로는 해양 자원 사업 매출이 12% 증가한 2,526억 엔을 기록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산 가다랑어, 일본 수역산 참다랑어, 그리고 대서양 그린란드 넙치 어획량 감소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호주산 대구와 새우, 그리고 뉴질랜드산 오징어, 전갱이, 호키(hoki) 등의 어종이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양식업에서는 방어 등 주요 어종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온상승 등의 영향 및 사료비 증가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

북미 지역에서는 계 물량 증가와 명태 연육 및 필렛 가격 상승으로 매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인 어분과 어유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알래스카의 수익은 감소하였다.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당 부문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는 태국 통조림 자회사인 Southeast Asian Packing and Canning이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성과를 거두면서 가공식품 부문 매출이 10% 증가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5월 12일자



호주 최대 참치 선사, 참치 투명성 서약 동참 2024년 이후 다수 정부, 단체, 기업 서명

호주 퀸즐랜드주 물루라바에 본사를 둔 Walker's Tuna社は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참치 투명성 서약에 서명하였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전자 모니터링 및 기타 투명성 노력을 확대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참치 어업에 맞서 싸우는 것이 목표인 NGO 단체 '자연보전협회(The Nature Conservancy)'가 주도하고 있다.

동사 상무이사 하이디 워커(Heidi Walker)는 회사가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우리 조업선에는 검증 가능한 어획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독립적인 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이미 장착되어 있어 참치 투명성 서약이 설정한 2027년 목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워커 상무는 말하였다. "오랜 기간 바다를 관리해 온 우리는 투명성과 추적성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어업 관행을 보장하며 업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서약에 참여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친 의미 있는 변화에 진지하게 임하는 다른 책임감 있는 조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보전협회는 이 서약을 통해 기업, 정부, NGO

를 포함한 참치 어업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산업용 참치 어선에 대한 완전한 해상 모니터링을 통해 전 세계 참치 공급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상 비디오 카메라, GPS 및 센서를 사용하여 어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전자 모니터링(EM)과 옵서버(human observers)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참치 및 기타 해양 종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자연보전협회는 전 세계 참치 어업이 물량 기준 연간 500만 톤, 가치 기준 100억 달러(88억 유로)를 생산하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서약은 2024년에 시작된 이래로 월마트, 타이 유니온, 까르푸, 앨버트슨 컴퍼니즈(Albertsons Companies), 아라마크(Aramark), 컬리머 USA (Culimer USA), 루사메리카 푸드(Lusamerica Foods), 홀푸드(Whole Foods), 퍼시픽 아일랜드 튜나(Pacific Island Tuna), 대형 냉동 참치 선박협회(Association of Large Freezer Tuna Vessels-AGAC), 벨리즈 정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유통업체, 산업 단체, 정부에서 채택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5년 5월 6일자



베트남산 참치 중동 수출, 난관 속에서도 성장세 전년도 대비 수출 28% 증가

중동이 베트남의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베트남의 중동 시장 참치 제품 수출은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였다.

2024년 베트남의 중동 시장 참치 제품 수출액은 1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과 EU 시장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계속되는 중동에서의 분쟁이 베트남 참치 수출업체의 우려를 가중시켰으나, 수출은 계속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업자협회(이하, VASEP)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 기준 미국 다음인 베트남 최대 참치 수출 시장으로, 2024년 베트남 전체 참치 수출액의 7%를 차지하였다. 이스라엘로의 2024년 참치 수출액은 2023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중동에 수출된 참치 통조림이나 자숙 로인의 구체적인 통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무역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동으로의 참

치 수출에는 여러 중대한 난관이 있다.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각 시장에 대한 할랄 인증이다. 할랄 인증은 특정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따르고 있으며, 무슬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인증이다. VASEP은 베트남 참치 제품이 할랄 인증을 취득한다면 중동 수출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VASEP 측은 “국가별로 다른 할랄 인증 과정이 혼란을 유발하고 신규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베트남 수출업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은 시장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할랄 식품의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VASEP은 베트남이 중동의 경제 중심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면서 향후 수개월간 무역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26일자

과학자, 전 세계적으로 오메가3 섭취 부족 확인

전 세계 인구의 85% 부족 상태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연구진은 전 세계 인구의 약 85%가 오메가-3를 권장량만큼 섭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인체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고 오직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다. 이 필수 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은 생선이다.

이 연구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통하여 많은

국가가 식품 공급에서 적절한 수준의 오메가-3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이 성분이 풍부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에서는 생선 소비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오메가-3 섭취를 향상하는 작업이 작년에 러시아 연방 정부 정책으로 승인되었으며, 중국에서도 비슷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 출처: Fishnet, 2025년 5월 7일자



페루 홈볼트 오징어 어업 회복세 오징어 가격 상승, 수출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

2024년 원어 부족으로 인하여 페루 가공업체를 곤경에 처하게 했던 페루의 홈볼트 오징어 어업은 2025년 첫 수개월간 완만한 회복세로 전해졌다.

한 업계 소식통은 수산물국제엑스포(이하, SEG)에서 “어획량은 회복하고 있으나, 오징어 링을 비롯한 일부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어체 크기가 너무 작다. 그래서 원어를 대부분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한 대형 가공업체 소식통은 “작년의 홈볼트 오징어 부족 현상을 겪은 후, 현재는 그나마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하였으며, 부가가치 제품의 상황은 큰 진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SEG 기간 동안 홈볼트 오징어 필렛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밝혔다. 오징어 가격은 현재 kg당 4.5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격은 2024년 가격인 kg당 2.70달러 대비 확연히 상승한 것이다.

페루산 오징어 수출량은 2024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중국은 페루산 오징어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다. 2024년 페루 수산물 가공업체는 홈볼트 오징어 부족 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페루 가공업체는 새치, 가리비, 고등어, 참고등어 등의 어종을 가공하는 등 생산라인을 다양화하여 공장 가동을 유지하였다.

페루 기업 Oceano사의 오너 Ignacio Tirado Melgar는 “페루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Sea Fresh사와 Town Dock사를 통하여 미국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에서의 입지와 페루에서의 사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5월 21일자

中, 국가 R&D로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연구 지원 집어등 조명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중국 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이 신규 오징어 집어등의 유효성 테스트를 “핵심 특별 프로젝트”로 정의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해상 집어등 어업에서 수준 높은 어획을 위한 지능형 장비 및 기술”이라는 명칭의 해당 연구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의 R&D 프로그램인 “해양, 담수, 양식업 과학기술 혁신”의 하나로써 상하이해양대학 연구진에게 인계되었다.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써, 상하이해양대의 해양

수산기술혁신팀 연구진은 최근 여러 대의 오징어 채낚기선에 AI 기반 광도 측정 장치를 설치하였다.

시험에 사용되는 선박 중 하나는 현재 북태평양에서 운항 중인 ‘Zhouyu 968’호로, 국영기업인 Zhoushan Marine Fisheries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 선사들은 모든 선박의 집어등 조명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Seafoodsource, 2025년 5월 2일자



세계 두족류 시장,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직면 생산 감소 대비 수요량 증가

2025년 초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두족류 연체동물 시장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다. 주요 생산 지역의 어획량 감소, 불리한 기상 조건, 추가적인 관세 장벽으로 인하여 주요 국제 시장에서 두족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유럽연합의 문어 수입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프랑스 파리와 영국 브릭섬과 같은 주요 도매 시장에서의 가격은 아직 급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2024년 일본의 문어 수입량은 3만 9,933톤으로 2023년보다 1% 감소하였다. 일본에 문어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중국은 10.8% 증가한 1만 717톤을 일본 시장에 공급하였다. 반면, 일본의 모리타니산 문어 수입량은 어획량 감소로 인해 2023년 대비 19.94% 감소한 9,715톤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2024년 전체 문어 수입량이 2%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문어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초, 페루와 인도양 연안 수역의 어획량 감소로 인해 주요 상업용 오징어의 글로벌 가격이 몇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중국 오징어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남동태평양과 인도양의 오징어 가격은 공급량 제한으로 급등했지만, 남서대서양과 북서태평양의 오징어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중국 가공업체는 재고 고갈과 높은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징어와 갑오징어 무역의 경우, 중국은 여러 국가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인하여 수입이 15.4%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8.7% 증가하여 강력한 글로벌 수요를 나타내었다. 스페인은 총 수입이 1.8% 감소했지만, 중국과 포클랜드 제도로부터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감소세를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미국은 4.15%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미국 시장의 최대 공급국인 아르헨티나는 수출량이 12.99% 증가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은 페루로부터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이 9.4% 감소했으나,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로 일부 상쇄하였다.

* 출처: Fishretail, 2025년 5월 27일자



칠레 1~4월 오징어 어획량, 전년 대비 48% 증가 일렉스오징어 대만 선단 어획량 감소

일본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선단이 적도상에서 어획하는 소형 아메리카 대왕오징어(적도오징어, 무라사키오징어)의 중국 내 가격은 4월 하순 시점으로, 1미당 500g 미만이 톤당 2만 2,800~2만 3,000위안이며, 가장 어획량이 많은 500g~1kg이 톤당 2만 1,700위안~2만 2,000위안, 1~2kg이 톤당 2만 3,200~2만 3,500위안, 2~4kg이 톤당 2만 3,200~2만 3,500위안이다. 현재 약 300척이 조업중이며, 1일 1척당 3톤을 어획하고 있다.

칠레의 1~4월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 어획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48% 증가한 6만 9,913톤으로, 유럽 등지에서의 매입이 증가하고 있

다. 페루에서는 3월 후반부터 어획이 계속되고 있으나, “1미당 1~2kg 정도의 작은 사이즈이다”라고 무역회사 소식통은 전하였다.

아르헨티나가 자국 EEZ에서 어획하는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의 어획량은 4월 22일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2만 3,570톤을 기록하였다. 1미당 200~300g이 전체 어획량의 40~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선단이 EEZ 밖에서 조업한 일렉스오징어의 어획량은 4월 하순 시점 기준으로 52% 감소한 4만 4,512톤이다. 소식통은 “작년 대비 1미의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언급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5월 14일자

日 냉동 오징어류 2024년 수입 통계 발표 페루산 수입량 약 30% 감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4년 냉동 오징어류의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3.6% 감소한 8만 6,629톤을, kg당 평균 단가는 6.5% 상승한 632엔을 기록하였다.

일본 국산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대체 원료로써 외국산 오징어를 이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페루 오징어 부족이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오징어 원료 부족이 강해졌다.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산의 수입량은 7.4% 감소한 4만 467톤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중국 선단이 적도상에서 어획하는 적도오징어

(무라사키오징어) 등을 수입하고 있다.

홍볼트 오징어를 어획하는 페루로부터의 수입량은 30.6% 감소한 1만 5,385톤이며, 칠레로부터의 수입량은 26.3% 증가한 1만 2,396톤이다.

2025년 1~3월의 냉동 오징어류 누계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1만 635톤이다. 국가별로 칠레산은 2.8배 증가한 1,695톤을 기록한 반면, 중국산은 20.6% 감소한 7,184톤, 페루산은 59.2% 감소한 1,153톤, 아르헨티나산은 66.4% 감소한 434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6월 2일자



포클랜드 로리고 오징어, 첫 어기 종료 자원량 급감 우려

포클랜드제도 정부는 생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여러 예방 조치를 시행한 후, 4월 27일자로 첫 번째 로리고 오징어 어기를 공식 종료하였다.

당국은 어기 시작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예정일인 4월 27일에 어기를 종료하였다. 당국은 오징어 자원 성숙도 추세가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감지한 후 4월 9일에 일부 구역에서의 조업을 조기 종료한바 있다.

포클랜드제도 천연자원부의 제임스 윌슨 국장은 “오징어 생물량은 지난 5년간 최저치이며, 2010~2020년대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하였다.

4월 9일, 당국은 어획된 오징어의 성숙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관측한 후 2개 어장에서의 조업을 종료하였다. 4월 말에는 업계에서 미성숙 오징어 유입에 대한 보고가 전해진 후, 보헤네 섬 주변의 구역 세 곳에서의 조업이 4월 25일에 종료되었다.

3월의 어획량은 약 2만 2,000톤으로, 이 시기의

평균 어획량인 약 3만 톤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이는 기존에 스페인 비고 선주협회가 예상하였던 어기 전체 예상 어획량인 4만 5,000톤에 훨씬 못 미친다.

신규 선박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40년간 건조된 트롤선 중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3,000만 유로 가치의 신조선 ‘Hadassa Bay’호는 첫 항해 중 엔진 문제로 인하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로 예인되었다.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 선사들을 비롯한 선사들은 어기가 조기에 종료되면 선단 개선을 위하여 투자한 2억 4,000만 유로 규모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선박은 대체 어종인 헤이크 등을 어획하기 위하여 공해로 이동하였다.

당국은 과감한 어업 종료 조치가 올해 말 두 번째 어기를 대비하여 로리고 오징어 개체수가 회복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4월 30일자





러 명태 협회장, 새 계획 밝혀

세계 명태의 42% 공급

알렉세이 부글락은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업 단체 중 하나인 러시아 명태협회의 회장으로 3년 임기 3연임에 성공하였다.

전러시아 수산업 및 수출업자 협회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단체인 러시아 명태협회는 국가 수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러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산물 자원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명태협회는 러시아 전체 명태 어획량의 79%, 전세계 명태 어획량의 약 42%를 공급하는 35개의 명태 어업 및 가공 회사가 회원사이다. 명태협회의 어선은 공모선 형태의 트롤 어선을 포함하여 145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태협회는 현재 오호츠크해, 서베링해, 북쿠릴, 캄차카, 동사할린 등 극동의 주요 조업수역에서 명태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명태 협회장은 올해 러시아 국내 수산물 시장 개발, 어업 지속 가능성 노력 강화, 어업 규제 개선 촉구, 러시아 명태 제품의 수출 잠재력 확대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명태협회장은 IntraFish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명태 회사에 국내 시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작년에 협회는 러시아 최초의 명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 명태 제품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협회장은 “2023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명태의 이미지를 바꾸고 러시아 전역에서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하였다.

명태협회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의 명태 소비량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1인당 4kg을 넘어섰다.

협회장은 “현재 어획량의 약 30%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명태 필렛 제품의 경우 러시아 국내 시장이 주요 공급처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소매 판매량은 금액 기준 40%, 물량 기준 20%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명란 제품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부글락 회장은 “중국 시장에 집중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출 시장인 일본과 한국이 계속 침체함에 따른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하였다.

협회는 올해 중국 내수용으로 최소 1,000톤의 냉동 명란을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향후 2~3년 이내에 수출량을 5배인 5,000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5월 31일자



알래스카 명태 업계, 인도 시장 연육 수출 추진

美 농무부 수출진흥 보조금 받아

현재 최대의 연육 수출 시장은 일본이며, 한국과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알래스카 명태 업계는 미국 농무부의 지원을 받아 인도로의 연육 수출을 늘리고자 한다.

알래스카 명태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GAPP는 최근 미국 농무부의 시장진흥프로그램(이하, EMP)을 통하여 12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 GAPP는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등 중요 시장의 진흥 프로젝트에 이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GAPP의 크랙 모리스(Craig Morris) CEO는 “우리 회원사는 인도에서의 연육 블록 매출 급증을 전망하고 있다. 인도로 수출되는 연육 블록은 연육 완제품으로 재가공되어 재수입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인도는 2023년에 미국산 연육을 23톤(6만 6,000달러)만 수입하였으나, 2024년 수입량은 2,152톤, 수입액은 52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모리스 CEO는 “우리의 관심사는 인도 시장을 개발해서 연육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인도의 가공 능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GAPP는 인도의 연육 가공 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무부가 지원한 자금으로 인도 소비자의 관심사 및 명태 업계가 이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모리스 CEO는 수산물 연육이 마치 ‘단백질 지점토’처럼,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

악하는 것이라고 모리스 CEO는 강조하였다. 모리스 CEO는 일본에서 생선 완자, 어묵, 휘귀, 또는 “슬림 집”처럼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주는 상온 보관형 연육 제품의 인기가 높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인도의 저온유통 시스템 문제 때문에 상온 보관형 제품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GAPP에서 이 부분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GAPP은 인도의 주요 연육 제조업체와 다른 기업을 만나 수요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다양한 즉석 조리 및 즉석 연육 제품을 생산하는 가드레(Gadre) 사는 GAPP의 필수 방문 목록에 올라 있다.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라트나기리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197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인도에서 게맛살 스틱을 최초로 출시한 브랜드”임을 자처하고 있다.

가드레는 인도에 연 4만 6,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3개의 연육 가공 시설과 연 3만 6,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2개의 부가가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모리스 CEO의 설명에 따르면, 명태 연육 블록은 알래스카에서 인도로 반입되어 게맛살 제품으로 재가공되고, 이 제품은 다시 미국으로 재반입되어 판매된다.

가드레 USA는 GAPP의 준회원이다. 모리스 CEO에 따르면 GAPP는 이전에도 가드레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주로 미국에서 수산물 연육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6월 3일자



EU 냉동 수산업계, 러 제재와 美 무역갈등으로 사면초가

美 보복관세 부과 시 흰살생선 타격 우려

EU는 지난 5월 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보복관세 부과 대상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 명단에는 연육 등 명태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EU가 발표한 미국 원산 혹은 미국산 제품의 대상이 되는 해당 보복관세 대상 목록에는 950억 유로(1,070억 달러) 상당의 폭넓은 공산품과 농산물을 비롯하여 많은 수산물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유럽 수산가공냉동식품 업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명태 필렛의 코드는 확인되지 않는다.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신규 수출자 명단 등록을 중단하였다.

EU는 또한 2024년부터 2026년 동안 적용되는 새 자율관세할당(ATQ)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명태 등 주요 흰살생선을 포함한 러시아산 수산물 제품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수입 면세가 사라지면서 13.7%의 표준 관세가 설정되었다.

영국은 2022년 7월 러시아산 흰살생선 수입관세를 35%로 인상하였다.

유럽 수산가공 및 냉동식품 업계는 대구 공급 감소, 명태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의 경우, 러시아산 명태 필렛 가격이 25%

인상되었고,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급을 증대시켰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25년 2월 보고서를 통하여, 완전 수입 중단 조치가 실행될 경우, EU에서 흰살 생선의 부족과 수요 감소를 초래하고, 특히 독일의 핑거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냉동식품 가공 산업에 고용 타격 등을 포함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4년 독일의 냉동 명태 수입량은 2024년 9월 기준 7만 8,700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다.

유럽에 수입된 러시아산 원어-중국 2차 가공 필렛 제품은 5만 5,000톤에서 2만 5,000톤으로 급감한 반면, 미국산은 3만 1,500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과거 저렴한 어종의 대표였던 명태가 눈에 띄게 비싸졌다. 이로 인하여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제안된 러시아산 완전 금수조치에도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5년 5월 10일자



4월 한국 명태 수입량 급감

물량 13%, 금액 23% 감소

2025년 4월 한국의 냉동 명태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 급감한 1만 1,249톤으로 2024년 4월의 1만 6,127톤보다 13% 감소하였다.

한국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5만 3,967톤의 냉동 명태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수입량인 6만 1,893톤보다 13%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냉동 명태는 2025년 첫 4개월 동안 한국의 총 수산물 수입량 31만 7,790톤의 약 17%를 차지하며 여전히 중요 어종으로 남았다.

러시아는 5만 3,442톤의 냉동 명태를 공급하며 한국 명태 수입량의 99%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미국은 481톤, 중국은 44톤을 한국에 수출하였다.

가격은 러시아산은 kg당 1.04달러, 미국산은 1.57달러, 중국은 1.91달러로 공급국 간 가격차가 컸다.

수입액은 2025년 4월 총 1,191만 달러로 2024년 4월 1,549만 달러보다 23% 감소하였다. 1월부터 4월까지 총 수입액은 5,665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다.

특히 평균 수입 가격은 2024년 kg당 0.96달러에서 2025년 1.05달러로 9% 상승하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한국 국내 수산물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5년 5월 12일자

아메리칸 씨푸드, 알래스카 명태 협회 탈퇴

美 명태 업계에 경종

베링해와 알류산 제도의 최대 명태 쿼터 보유업체인 American Seafoods社가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협회(GAPP)를 탈퇴하였다. 협회를 통하여 수년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이 대기업은 협회를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 관계자는 논쟁을 거부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회사 전략 목표 변화 및 협회 내부 구조 변경 등을 지적하였다.

미국 명태 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연어 등 어종을 대량으로 혼획하며 환경 기준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 단체는 소

설 미디어를 활용하여 명태 어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

미국 명태 업계는 명태 어업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새 조직인 ‘APFA(Alaska Pollock Fishery Alliance)’를 설립하여 대응하였다.

아메리칸 씨푸드의 정책 변화가 협회 자체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업계의 평판과 미래 발전에 악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 타 회원사의 대응과 이러한 조치의 여파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출처: Fishnet, 2025년 5월 14일자



러시아, 필렛과 민스 공급 증가

건강한 식단의 선두인 생선 제품

올해 3월까지의 생선 필렛과 기타 어육 제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72% 증가하여 1억 4천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수출량은 61% 증가하여 5만 톤에 이르렀다. 수출액 기준 주요 품목은 명태 필렛과 민스 제품이 70% 이상이며 대구 필렛은 17%를 차지한다. 2024년 1분기에 비해 명태 필렛 수출액은 85% 증가한 약 1억 2백만 달러, 대구 필렛은 51% 증가한 2,400만 달러에 달하였다.

2025년 초 러시아 생선 필렛의 최대 구매자는 한국과 중국이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러한 제품의 한국 수출 가치는 65% 증가, 중국 수출 가치는 2.5배 증가하였다.

생선 필렛, 민스 및 연육의 러시아 수출 공급의 기초는 명태 제품이며 올해 초 수출 증가는 제품 생산량 증가와 세계 시장의 유리한 조건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기인한다고 어업연합 회장 알렉산드르 빠닌(Александр Панин)은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가공 시설의 개발이 주목받았다. “2025년 1분기 해상 선박의 명태 필렛 생산량은 약 4만 7,0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명태 민스(연육 포함) 생산량은 20% 증가하여 4만 3,000톤에 달하였다.”라고 빠닌은 밝혔다. 올해 1분기 명태 제품(필렛, 민스 및 연육)의 세계 가격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20% 상승하

였다.

또 다른 요인은 불안정한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과 미국 명태 생산 감소로 인하여 미국 명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2025년 1월에서 2월까지 중국향 러시아 연육 제품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중국향 연육 수출량은 제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라고 전문가는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관찰된다. 2025년 1~2월 간 러시아 연육 수출량은 110% 증가, 가치는 90% 증가하였지만, 미국산 수입량은 1/3로 감소하였다.

어업연합은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고려할 때 러시아산 생선 필렛과 민스 제품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과 반제품에 대한 수요는 생선 필렛과 민스 제품 소비의 높은 성장률을 보장하며, 전문가 추정에 따르면 가치 기준 연간 6% 증가를 초과한다. 인구의 부와 평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 국민은 식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선은 가장 인기 있는 식품 중 하나이다.”라고 빠닌은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공 시설을 갖춘 새로운 선박을 고려할 때 러시아 수산 단지는 필렛과 연육의 생산량 증가를 보장할 수 있다.

* 출처: Fishnews, 2025년 5월 12일자



러, 5월 19일 시점 약 194만 톤 어획

명태 110만 톤 어획으로 지난해 대비 2만여 톤 감소

러연방 조업감시센터(CFMC)에 따르면, 2025년 5월 19일 기준 러시아의 어획량이 193만 6,300톤을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만 톤 감소하였다.

- 극동 수역은 151만 8천 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7만 1,600톤(4.5%) 감소하였다. 명태 109만 5,100톤(2만 2,600톤 감소), 대구 5만 6천 톤(1,900톤 증가), 청어 24만 5천 톤(1만 8,200톤 감소)

- 북부 수역은 13만 2,200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7만 5,200톤(36.3%) 감소하였다. 대구 8만 1,500톤(2만 5천톤 감소), 해덕 2만 2,800톤(지난해 대비 1,300톤 증가)

- 서부 수역은 3만 8천 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6천 톤(13.6%) 감소하였다. 유럽 청어 2만 5,100톤(1,700톤 감소), 발트해 청어 1만 1,500톤

(1,800톤 감소)

- 아조프-흑해 수역은 1만 8,600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4,500톤(31.4%) 증가하였다. 멸치 1만 2,600톤(3,400톤 증가)

- 볼가-카스피 수역은 4만 900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2,200톤(5.1%) 감소하였다. 유럽 청어 2만 1,500톤(1,200톤 증가), 기타 잡어 7,200톤(3,200톤 감소)

- 원양수역은 17만 9,360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1만 9,793톤(12.4%) 증가하였다.

외국 EEZ: 12만 388톤(2,487톤인 2% 감소)

공해 및 국제 협약 수역: 5만 8,972톤(2만 2,280톤인 60.7% 증가)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5년 5월 20일자

日 알래스카산 명태 연육 B시즌 수입 가격, 상승 예상 3시즌 연속 상승

2025년 6월 10일부터 개시될 베링해 알래스카 명태 어업 2025년 B시즌을 앞두고, 미국 가공업체와 일본 수입업체 간의 냉동 연육 블록 협상이 6월 초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러 소식통은 연육 가격이 A시즌과 마찬가지로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4월 초, 명태 연육을 수입하는 일본 가공업체 측에 따르면, 연육 가격은 계맛살 제품의 주요 원료인 A급 연육을 기준으로 kg당 30~50엔

(0.21~0.35달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 주요 가공업체 임원은 “급격한 가격 인상은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일본이 수입하는 명태 연육 가격은 2023년에 급락하였으나, 이후 지금까지 3시즌 연속으로 상승하였다. 2025년 A시즌에 일본 측은 중~고급 연육에 대한 kg당 50~60엔의 가격 상승과, 2급 제품 kg당 20~30엔의 가격 상승을 수용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5월 21일자



2024년 명태·대구 등 세계 무역량 감소 러 제재 등 원인...제재로 인하여 공급 지형 변화

FAO에 따르면 2024년 명태, 대구 등 저어류의 세계 무역량은 대구 어획 쿼터 감소 및 러시아산 명태 제품에 대한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러시아는 2024년 약 80만 톤의 명태 제품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2023년 대비 약 4만 톤, 2022년 대비 약 20만 톤 감소한 수치이다. 이 수출량의 대부분은 재가공 목적으로 중국으로 향하였다.

중국의 2024년 냉동 명태 제품 수출은 57만 5,000톤으로, 2023년 대비 약 7% 감소하였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감소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명태 수입량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여전히 90%이다.

한편, 미국의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량은 4만 6,600톤으로, 2023년 대비 53%나 증가하였다.

중국의 제품 수출량은 19만 4,000톤으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국 시장용 제품이 감소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일의 냉동 명태 필렛 수입량은 2024년에 11만 2,000톤으로, 2023년 대비 25% 감소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9만 톤에서 3만 7,000톤으로 급감하였다. 미국산 수입량은 4만 톤으로, 2023년 수입량 대비 2배 증가하며 최대 공급국으로 부상하였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5년 5월 25일자

생선의 냉동은 나쁜가? - 냉동 명태의 이점 맛, 식감, 영양 성분을 그대로 보존

명태는 러시아 중부의 식품 진열대에 오로지 냉동 형태로만 도착하게 되는데, 이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명태는 태평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어획되어, 트롤 조업선의 항해는 몇 주에서 6개월간 지속된다. 맛과 식감, 영양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선상에서 또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생선을 가공하고 냉동한다.

이때 첨가물이나 방부제 없이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급속 냉동을 사용한다. 이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을 보장한다.

적절하게 해동된 명태는 섬세한 식감과 자연스러운 풍미를 유지하며, 이러한 명태를 사용한 요리는 방금 잡은 생선처럼 육즙이 풍부하다.

영양학자들은 단백질, 요오드, 인,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으므로 명태를 가장 건강한 제품 목록에 포함한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매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때 급속 동결 냉동명태는 그 해답을 제공한다.

※ 출처: Fishnet, 2025년 6월 3일자



日 선사, 콩치붕수망-참치연승 겸업으로 효율화 모색 대형 선박 선택 주목

일본 선사 이케다수산이 콩치 붕수망 어업과 참치 연승 어업 겸업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케다 히로토 전무는 지난 5월 30일 수산·식량연구회(회장 바바 오사무 도쿄해양대학 명예교수) 제152회 강연회에 등단해 겸업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케다 전무는 겸업선이 전문 어선보다 조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과 복수의 개별 어획 할당량(IQ) 보유가 필수적이어서 신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어선 건조 허가와 IQ 관리의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케다 수산은 원래 참치 연승 어업과 콩치 붕수망 어업 각각에 전문 어선을 운용해 왔다. 변화의 계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다. 당시 콩치 전문 어선 한 척이 미야기현 계센누마항에서 쓰나미 피해를 입어 대체 선박 건조가 필요해졌다.

회사는 이 기회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한정 조업으로는 승무원들의 연중 고용이 어렵고, 단일 어종에 의존하는 어업으로는 경영 안정이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원 증가가 주목받던 남방참다랑어 등과의 겸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건조된 선박은 8월부터 12월까지의 기존과 동일하게 콩치 붕수망어업을, 휴어기였던 2월부터 6월까지의 같은 어선으로 남반구에서 원양 참치 연승 어업을 진행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규 선박 건조 시 영하 60도 초저온 동결 설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주 어종인 콩치 어장이 원거리 화되는 상황에서도 어획량이 적을 경우 항구로 돌아가지 않고 해상에 머물며 부가가치가 높은 냉동 콩치를 생산하여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해졌다.

겸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5년째를 맞고 있다. 초기에는 선원들의 혼란과 문제점도 있었지만, 젊은 선원들을 중심으로 경험을 축적하며 어업 자로서의 실력을 향상하였다. 또한, 선상 동결 초저온 냉동 콩치의 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콩치 어업 시에는 전문 어선과 비교하여 선박 속도가 느리고 어창이 작다는 점 때문에 풍어 기회 손실이 발생하며, 선상 동결 역시 공간 문제로 기계 도입이 어려워 수작업에 많은 품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 어업에서도 어창 문제와 거주 공간이 좁아 선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점, 그리고 연료 탱크가 작아 보급 횟수가 늘어나 항해 능력이 전문 어선보다 떨어진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다른 콩치 어선들로부터도 자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겸업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단일 어업을 하던 어업인들에게는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어선 문제 중에서는 콩치 붕수망 어선이 199톤까지만 허용된다는 제약이 있다. 이케다 전무는 “콩치 어업에서는 대만 대형 선박들이 바다에 상주하고 있다.



일본 선박들도 조금이라도 요건이 완화된다면 최적의 선박으로 조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어종에서는 “양도 가능한 개별 할당 제도(ITQ)처럼 유연하게 IQ 이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케다 전무는 원양에서 그룹 조업이 주류가 되는 상황에서, 겸업이 일본 어선 수를 유지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연중 조업을 실현함으로써 “회사로서 경영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돈을 벌고 싶다’라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도 부응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남방 참다랑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도 언급되었다. 이케다 전무는 “가격이 저렴해져서 소비자들이 접하기 쉬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재 구입 등을 고려하면 kg당 2,000엔 정도는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유통명인 ‘인도 참다랑어’가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남방참다랑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수산업계와 행정의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호소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6월 6일자

日 공치 어선 빨강오징어 겸업 시험조업, 2차 개시

북태평양 공해에서 시험조업 실시

무라사키오징어(빨강오징어, Neon flying squid)의 조업 겸업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 개발조사센터가 용선한 대형 공치 봉수망 어선인 ‘제8와카시오마루(第8若潮丸, 199톤)’호가 5월 16일 홋카이도 네무로시 하나사키항에서 출항하였다. 작년도에 실시한 제1차 시험조업보다 자동 낚시기의 대수를 늘리는 등, 중형 오징어 어선에 더욱 가까운 개조가 행해졌다.

이번 실증 조사에서는 7월 4일까지 약 1개월 반에 걸쳐, 북태평양 공해 산리쿠 연안(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에 걸친 해안)에서 무라사키오징어의 시험 조업을 실시한다. 2~3월에 산리쿠 연안에서 실시한 제1차 조사에서는, 공치 봉수망

어선을 최소한으로 개조한 환경에서도 어획이 가능함이 입증되면서, 조업의 실현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5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조사에서는, 중형 오징어 어선에 더욱 가까운 개조를 실시하였다. 공치 조업용의 LED 집어등은 장대로부터 분리하고 선체 상부에서 가로 방향으로 다시 배치하였고, 자동 오징어 낚시기는 5대에서 20대로 증설하였다. 선체를 안정시키는 파라슈트 앵커(parachute anchor)도 장착하였다.

겸업에 필요한 요건을 밝혀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인원 확보 등의 효과도 정리하여, 년 단위 가동 가능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5월 20일자



포클랜드 이빨고기 수출업체, 대체 시장 모색 판매 다각화 전략 모색 필요

미국의 무역 정책이 포클랜드 제도의 이빨고기 수출에 위협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포클랜드에서 수입하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이 산업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포클랜드 제도의 독점 연승 운영사인 Consolidated Fisheries社는 이번 주에 열린 Seafood Expo Global(SEG)에서 이 어업의 자원 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상업적 전망은 위협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포클랜드 제도에 부과한 42%의 관세는 90일 동안 이빨고기 등 일부 품목에만 일반 관세인 10%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7월 9일이 되면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현재 관망하고 있는 시기이다.”라고 동사의 총책임자인 자넷 로버트슨(Janet Robertson)은 말하였다. “42%의 관세가 다시 부과되면 모든 이빨고기 생산국 중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미국에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BBC 기사에 따르면 인구 3,700명 미만의 군도인 포클랜드 제도는 자치 정부가 수립되어 있으며 직접 무역 정책을 결정하나, 국방과 외교는 영국이 책임지고 있다. 2023년 포클랜드 정부의 국민총생산 2억 8천만 파운드(3억 7,340만 달러)이며, 어업이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미국 시장은 오랫동안 포클랜드 이빨고기와 같은

8~10kg의 대형 어종에 대한 주요 수출처였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로버트슨은 미국 시장이 전체 판매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포클랜드 제도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냉동 이빨고기 공급국으로 2024년에 589톤, 1,940만 달러 상당의 이빨고기를 수출하였다. 미국의 주요 이빨고기 공급국으로는 한국(1,904톤, 5,950만 달러 상당), 호주(1,689톤, 5,360만 달러 상당), 칠레(1,221톤, 3,690만 달러 상당), 아르헨티나(1,200톤, 3,670만 달러 상당)가 있다.

앞으로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포클랜드 수출업체는 수요가 여전히 강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성장 시장으로 수출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포클랜드 제도 최대 기업인 포투나(Fortuna)의 어업 책임자인 존 바튼(John Barton)은 이빨고기 어업이 시장 접근성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관리되는 어업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이빨고기 어업은 매우 잘 관리되고 과학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어업이다. MSC 인증을 받았고, 엄격한 쿼터가 있으며, 포괄적인 바닷새 혼획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의 지속가능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장 접근성만이 문제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 이빨고기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안정적인 가격과 제한된 공급에 힘입어 코로나19 이후에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시장 접근성이 상실되면 지속가능성 관행으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로버트슨은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가 핵심 문제”라고 말하였다. “미국 소비자, 수입업자, 생산자 중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미국이 유예 기간 이후 42%의 관세를 적용한다면 포클랜드 수출업체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판매 다각화 전략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바튼은 “우리는 프리미엄 상품을 위한 프리미엄 어업을 하고 있지만, 모든 수출업체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5월 7일자

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 방사성 물질 검사 필수

일본과 중국 정부는 5월 28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하여 전면 중단되었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치 재개에 합의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 쿠니에다 겐 국제지역과장은 “2023년 8월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ALPS 처리수의 방출 전과 거의 동등한 조건으로 돌아온다”라고 설명하였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재개 시기는 불명확하다. 중국 측에서 수출 관련 시설 재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수출이 시작된다. 종전처럼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는 필수이다.

새로운 규제는, 첫 수출까지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90과 트리튬의 검사도 필요하게 된다. 검사

보고서 사본을 매 수출 로트(lot)별로 첨부한다.

전면 중단 이전부터 있던 일본 10개 도현(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나가노, 니가타)에 대한 규제는 계속된다. 쿠니에다 과장에 따르면, 중국 측으로부터 “처리수의 방출 전에 등록이 있던 지역의 재등록을 우선한다. 사실상 10개 도현은 대상 외”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재무성 무역 통계에 의하면, 전면 중단 전인 2022년에 중국은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량 및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수량은 15만 6,741톤, 수출액은 843억 5,100만 엔이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6월 2일자



법원이 제동 걸었던 美 상호관세 계속 부과 항소심 “심리 기간엔 일단 유지”

지난 28일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 70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명령은 위헌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2심 법원이 “1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관세 횡포를 미국 사법부가 견제해 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잠시 가졌다가, 관세 집행을 계속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2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수입 업체들과 12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제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면서 “10일 이내에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 철회를 위한 구체 지침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관세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무제한 부과 권한을 위임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면서 즉각 항소했고 판결 효력 중지를 요청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만 1심 판결 효력을 언제까지 정지시킬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플로리코는 재판부 일정 등을 토대로 최소 다음 달 중순까지는 효력이 중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이뿐만이 아

니다. 지난달 2일 트럼프가 1977년 제정된 IEEPA에 근거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미 전역에선 각 지방정부, 기업·개인의 불복 소송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1심을 맡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가 미국 법원의 결정에 좌우되는 현 상황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9일 중국에 공장을 둔 미 장난감 회사 러닝리소시스 등 두 곳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가 IEEPA에 근거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는 무효”라는 취지다. 다만 이 판결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두 업체에만 적용되며 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효력을 2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지난 20일 위 두 사건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문구 회사 ‘에밀리 레이 페이퍼’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관세 소송은 CIT에 관할권이 있다며 사건을 이송했다. 다만 이 판결은 재판 관할권에 관한 것으로 본안 사건을 제대로 심리한 것은 아니다.

몬태나주에서는 인디언 보호구역 ‘블랙피트’ 내 원주민들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물품에 관세를 물지 않도록 한 ‘제이 조약(1794



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블랙피트 내 목장주인 조너선 세인트 등은 “트럼프가 캐나다에 부과한 25%의 관세(유예 중)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미래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끌어갈 태세다. 연방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 구도여서 트럼프의 희망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백악관은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도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전엔 트럼프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30일 일본 대표단

이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할 것이라면서 “우리 무역 파트너로부터 태도 변화 징후는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22일 2차 실무 협의까지 마친 상태로 이후 일정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두 차례 실무 협의에서 서로 견해차를 좁혀온 동력을 꺼뜨려선 안 된다”라며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조선일보, 2025년 5월 30일자

美 법원,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행위”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EEPA, 미국의 안보, 외교 및 경제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외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근거로 하여 시행한 전 세계 대상 관세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관세를 모두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 법안이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부과한 10% 관세와 함께, 중국에 부과된 30%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도 모두 무효로 선언하였다. 일부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으로 연기되거나 축소

되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더욱 높은 관세가 적용되어 7월 9일부터 발효 예정이었으나 모두 이번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CNN이 보도하였다.

이번 판결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301조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중국 수산물에 대한 일부 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관세의 영향을 받은 기업과 미국 주 정부가 각각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것이다. 소를 제기한 측은 수입 관세 부여가 미국 헌법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3인 판사단은 판결문에서 “법원은 IEEPA를 무제한적인 권한 부여로 해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이의제기가 관세를 무효화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5월 28일자



중 연어 시장 잠재력, 생각보다 훨씬 커

1인당 0.08kg 소비로 이미 7번째 소비시장 달성

4월 중국으로의 노르웨이 연어 수출이 급증하였다. 작년 4월에 비해 무려 188% 증가한 8,224톤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의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중국 경제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어 수요는 급증하였다. 2024년 4분기에 연어 수요는 30% 가까이 성장했으며, 2025년 초에는 노르웨이의 주력 제품인 신선 통연어 소비가 33% 성장하였다.

중국으로의 평균 수출 가격은 전년 대비 25% 하락하여 100 크로네(9.20달러)로 감소하였고, 4월에는 86.13 크로네(7.92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연어 수입량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가 아닌, 제품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측된다.

원래 노르웨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 뒤쳐져 있었다. 하지만 3월은 전환점이 되었다: 노르웨이 연어는 전체의 62%, 신선 연어 부문에서 6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0년 만에 중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노르웨이산의 저렴한 가격과 대형 사이즈 공급은 중국인의 선호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수요는 소매업 마케팅으로 촉진되고 있다.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TikTok, Red Book 같은 SNS/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장 직거래 마케팅이 주요 판매 채널이 되었다. 공장에서는 가공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며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한편, 연어는 연안 거점을 넘어 경제 성장과 중산층 확대가 가속화되는 내륙 도시로 더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중국은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00곳이 넘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구매력도 증가하고 있다. Oxford Economics는 2020년과 2030년 사이에 1억 4,500만 명의 중국 인이 중산층에 추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국에는 현재 15~20개 가공 시설이 생기는 등 더 많은 시설이 건설 중이다. 이러한 공장은 주로 현대적인 소매 및 온라인 플랫폼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 증가와 현지 처리 능력 부족을 시사한다.

빠르게 떠오르는 또 다른 판매 채널로는 연어를 회나 초밥으로 썰어주는 소규모 테이크아웃 매장이 있다. 이러한 매장은 전통적인 레스토랑이나 소매점 부류를 우회하여 매장 식사 없이 현장에서 판매 혹은 무료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한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23년 중국은 7번째로 큰 연어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1인당 소비량은 0.08kg(회 4조각 정도)으로 홍콩의 2.1kg, 한국의 0.67kg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노르웨이 연어는 생선회 중 저렴한 편에 속한다. 가격과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로 인해 전망은 밝다.

결론적으로, 중국 연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인프라, 디지털 혁신, 수요 증가와 어우러져 연어 수출업체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5월 15일자



中, 세계 최초의 연어 양식 선박 건조

선내 가공 시설을 통해 신선한 생선 공급 가능

중국은 2025년 6월에 세계 최초의 연어 양식 선박을 고객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선주사인 Jiangsu Lianshen Marine Technology에 따르면, 길이가 약 250m(820피트)에 달하는 'Su Hai 1호' 선박은 연간 최대 8,000톤의 연어를 생산할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도하였다.

기존의 해상 그물 양식 시스템과 달리 이 선박은 태풍이나 유해 해조류 번식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해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선내에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선한 가공 연어를 일부 국내 시장에 배송할 수 있다.

'Su Hai 1호'는 4월 말 시험 항해를 마치고 현재 조선소에 머물고 있다. 이 선박은 올가을 장쑤성 쉐먼항 연안 황해에서 운항을 시작하여 내년에 본격적인 어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5월 28일자

러시아 어업 회사, 처음으로 EU 제재 직면

스파이 활동 등으로 선박의 통항, 수리, 하역 금지

유럽연합은 17번째 제재 패키지에서 노레보와 무르만 씨푸드 홀딩스의 선박에 대해 제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어업 회사가 EU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로 인해 러시아산 생선 수출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해당 선박에 대한 제재는 EU 수역 통항 금지, 선박 수리 및 항구에서의 생선 하역 금지 등이 포함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시장은 러시아 생

선 생산자에게 공급 측면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다. 2024년 말까지 러시아 수산물의 EU로의 수출은 18만 톤 또는 7억 유로에 달하였다.

EU는 노레보와 무르만 씨푸드 선박이 북해와 발트해에서 스파이 활동에 사용되는 기술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때문에 해당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노레보는 스파이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출처: Finance.ru, 2025년 5월 21일자



中, 유엔 항만국조치협정 가입

IUU 어업 근절 목적

중국은 IUU 어업에 연루된 참치와 수산물의 자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유엔 항만국조치협정(이하, PSMA)에 조인하였다.

중국은 4월 16일에 PSMA의 82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IUU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인 PSMA는 2016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당국이 항구에서 더욱 엄격한 통제와 견제를 시행함으로써 IUU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제 무역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의 PSMA 가입은 책임 있는 거버넌스와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글로벌 노력의 이정표이다. 이번 조치는 PSMA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IUU 어업에 맞서려는 기존 PSMA 가입국 및 중국을 따라 가입할 국가들의 강력한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굴동위(Qu Dongyu)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 사무총장은 말하였다.

중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MARA)는 이번 PSMA 가입 움직임이 2020년 이후 기관 간 연구, 현장 연구, 글로벌 대화 등 많은 작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 자원 보호에 대한 중국의 기여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요 수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연승선단 및 대량의 선망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어업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항구에 들어오는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조건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어업법 개정안 초안을 승인한 바 있다.

FAO에 따르면, IUU 어업으로 어획되는 수산물의 가치는 연간 약 230억 달러로, 전체 자연산 어획 수산물의 가치의 1/5에 해당한다.

* 출처: Atuna, 2025년 5월 1일자

러시아와 오만, 어업 협력 강화

어장 연구와 수산물 공급 기회 확대 협력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만 헤이삼 술탄 간의 협상 중 연방 수산청과 오만 농림수산식품부 사이에 어업 분야 협력 각서가 체결되었다.

양국은 수자원의 보존, 관리 및 합리적인 이용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IUU 어업을 근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획 및 가공 방법을 개선하고 수산물의 거래와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작업도 포함된다. 또 다른 협력 분야는 수산업을 위한 과학 연구, 어업인력개발이 있다.

“러시아 및 오만 전문가의 참여로 어장 연구 수행이 향후 수년간 과학 기술 협력의 주요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러연방 수산청장은 말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5년 4월 22일자



칠레 수산물 수출 급증

미국, 칠레 최대 수산물 수출시장 지위 지켜

칠레 외교부 경제국제관계국(ProChile)의 최신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칠레의 수산물 부문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총수출액 8억 2,6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한 갑오징어와 홍합의 판매 실적이 두드러졌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갑오징어 수출액은 4,200만 달러로 336.8% 급등하였고 홍합 수출액은 3,700만 달러로 37.6% 증가하였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연어와 송어가 주도한 수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5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갱이 또한 19.4% 증가한 5,7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칠레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3월 수출액은 총 2억 5,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30.7%를 차지하였다. 이중 연어와 송어(2억 3,200만 달러, 3.7%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어분(600만 달러, 4.4% 증가)과 홍합(300만 달러, 7.3% 증가)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수입국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칠레의 수출액은 43.6% 증가한 1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연어와 송어(1억 1,100만 달러, 41.8% 증가)와 갑오징어 수출(500만 달러, 446.5% 증가)의 급격한 증가가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였다.

브라질은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연어와 송어(7,900만 달러, 8.9% 증가)를 중심으로 8,100만 달러 상당의 칠레산 수산물을 수입하였다.

하지만 모든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39.1% 감소한 4,3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어분 수출이 56.8% 감소한 1,600만 달러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칠레의 수출은 2025년 1분기 총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24억 8,900만 달러에 달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연어와 송어의 판매 호조와 고등어, 갑오징어, 홍합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하였다.

연어와 송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한 18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이다. 그러나 가장 큰 성장은 전갱이가 31.7% 증가한 1억 4,500만 달러, 갑오징어가 548.4% 증가한 9,600만 달러 등 소규모 수산물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홍합 수출도 32.1% 증가한 8,600만 달러, 해조류 수출은 20.7% 증가한 3,2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전반적인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위 부문은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어분 수출은 23.7% 감소한 1억 700만 달러, 어유 및 한천 수출은 7.7% 감소한 4,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작년보다 1.8% 증가한 7억 4,600만 달러의 총 수출액을 기록하며 칠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연어와 송어 수출이 0.7% 소폭 증가한 6억 7,500만 달러, 어유 수출이 8.3% 증가한 1,200만 달러로 성장을 주도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4월 25일자



中 영양 목표, 수산물 성장 기회 창출

생선, 이상적인 고품질 단백질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식품 및 영양 개발 가이드라인(2025~2030)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고단백 식품의 소비를 늘리라고 강조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품질 단백질이 일일 총 칼로리 섭취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공급 시장인 중국에서 생선과 수산물 소비 증진 여건을 마련한다.

차이나 데일리가 인용한 중국 국가식품영양위원회의 첸 멩산 국장에 따르면 중국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 수준보다 낮고 선진국에 비해 최대 2배나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생선과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권장 사항 중에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이러한 식품을 포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있다. 러시아어선주협회도 급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장수를 위한 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음식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 60g의 단백질, 그중 생선은 “이상적인 공급원”이다.
- 지방 50~70g, 특히 생선 기름과 같은 불포화 지방을 우선적으로 섭취
- 탄수화물 공급원으로서 통곡물 섭취

* 출처: Fishnet, 2025년 4월 29일자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 간소화 위한 협의 시작

전자 인증으로 수산물 공급 최적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산 생선 등 수산물 공급을 단순화하고 해양 및 수산 사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자 인증서 도입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도네시아 수산품질관리감독청장 이사르티니는 “사업체들이 러시아 및 EU에 수산물을 더 쉽

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전자 인증서 관련 협력을 시작했다”라고 강조하였다.

전자 인증서의 도입은 수산물 선적 및 하역 프로세스가 용이해져 러시아와 EU 시장에 상품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Fishportal, 2025년 5월 5일자



어부

김 종 삼

바닷가에 매어 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머털리 노를 저어 나가서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5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172% 증가, 수입량 16% 증가

❖ 생산동향(5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17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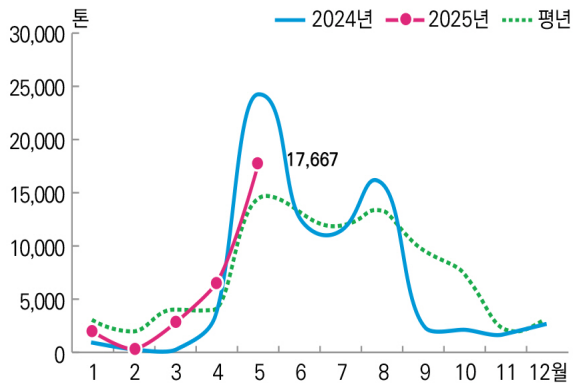
5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월 대비 172.4% 증가한 1만 7,667톤이었다. 평년보다 늘었으나, 반입량이 크게 늘었던 전년 동월 대비 적었다.

연근해 생산량은 746톤으로, 일부 업종 금어기 해제로 전월보다 늘었으나 평년 대비 부진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동해 남부 해역을 중심으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자원 밀도가 저조하였다.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전월 대비 161.2% 증가한 1만 6,921톤으로 평년 대비 26.3% 많았다.

한편, 5월 원양오징어 어획량은 6,294톤으로 전월(7,240톤) 대비 13.1% 감소했으며, 누적 어획량은 4만 3,942톤으로 작년(5만 8,775톤) 및 평년(4만 6,924톤) 대비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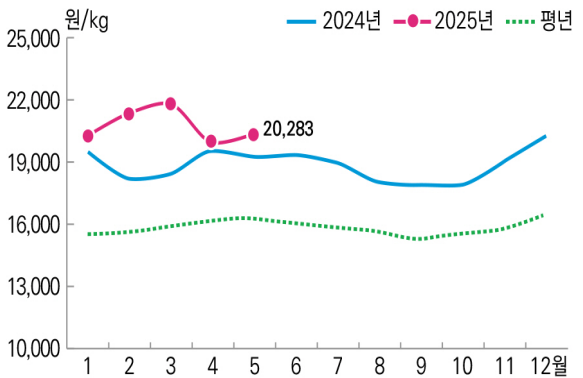


❖ 가격동향(5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2% 상승)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거래량이 미미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높았던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평년 대비 53.7% 높았다.

연근해산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1만 3,613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였으며, 소매가격은 kg당 2만 283원으로 일부 지역 전통시장 가격이 소폭 인상되며 전월 대비 1.6% 상승하였다.

원양산 오징어(냉동) 소매가격은 어한기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25.4.15 ~ 6.27) 지속 및 반입량 증가로 전월 대비 1.9% 하락한 kg당 1만 5,670원이었다.





❖ 수출입동향(5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16% 증가)

5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 대비 48.3% 감소한 1,324톤으로 평년 대비 3.4% 적었다.

국가별로 수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708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462톤, 일본으로 29톤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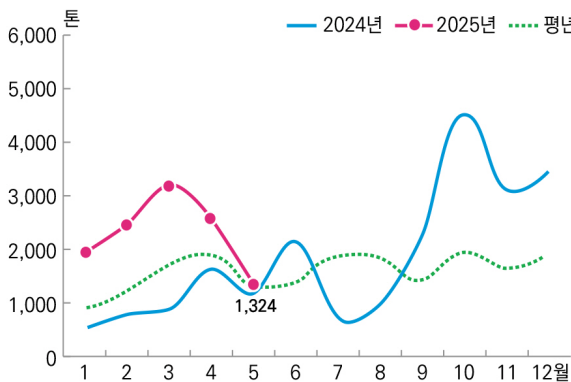
작년 하반기부터 예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의 수출은 4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5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16.2% 증가한 2만 6,46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25.0%, 18.9%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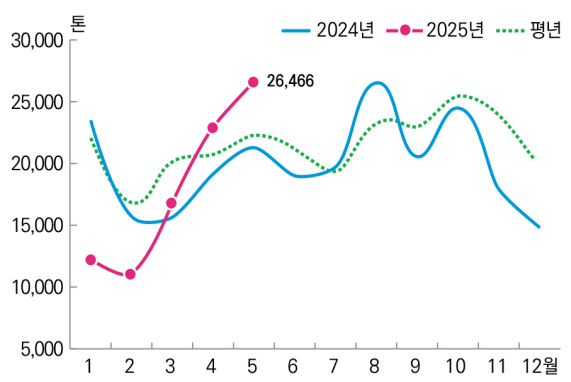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1만 1,377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국산(8,418톤), 칠레산(2,92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페루산 오징어(홍볼트 오징어)의 경우 2024년에는 어획량이 급감하며 평년 대비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어황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입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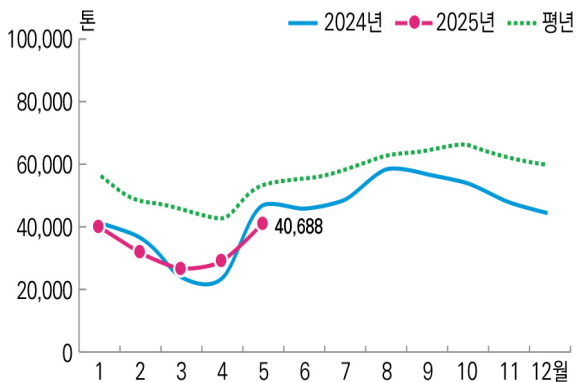


❖ 재고동향(5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39% 증가한 4만 688톤)

5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39.2% 증가한 4만 688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적었다.

연근해산은 전월과 비슷한 6,182톤이었으며, 원양산은 반입량이 늘어 전월 대비 49.8% 증가한 3만 4,506톤이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6월호





5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38% 감소, 소비자가격 2% 상승

❖ 생산동향(조업지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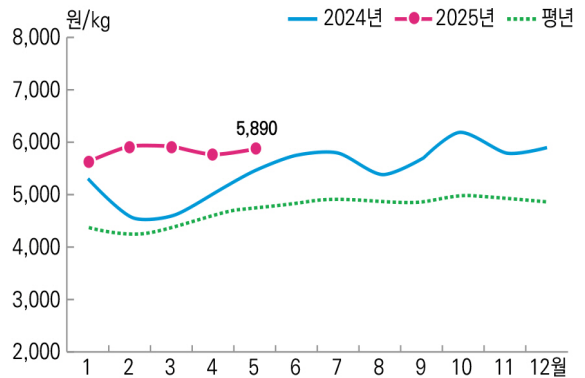
원양트롤어선은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여 선박당 러시아 국경수비대 감독관을 정상적으로 승선 후 북서베링해 조업지로 이동하였다. 조업선의 실 어획은 6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

❖ 가격동향(5월 냉동 명태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2% 상승한 kg당 5,890원)

5월 냉동 명태 도매가격은 kg당 2,401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으며, 작년 동기보다는 소폭 높았다.

냉동 명태 소비자가격은 kg당 5,890원으로 전월 대비 2.0% 상승하였다.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7.7%, 23.5% 높았다.



❖ 해외동향

○ 미국의 연방법 제301조 관세 유예로 중국산 명태의 미국 수출 일시적 안정세 보여

미국은 수산물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당초 6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중국산 명태 H&G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8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수산가공업체의 대미 수출은 수출 중단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명태 H&G 가격도 일정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H&G 공급업체들은 관세 유예 조치를 수출 재개 및 가격 협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시장에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가 8월 31일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가공업체들의 미국 수출 물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

미·중 간 관세 변동은 향후 우리나라의 명태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관세 협상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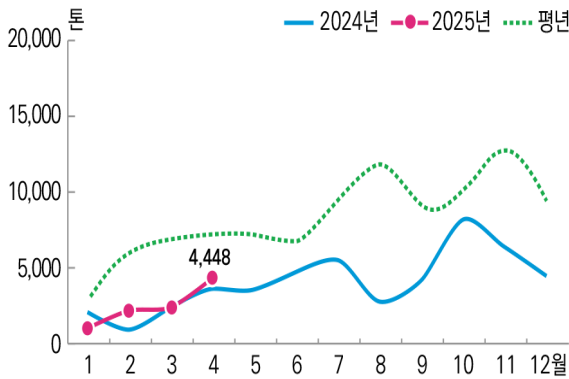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5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38% 감소한 1만 9,678톤)

5월 명태 수출량은 2,946톤으로 전월 및 작년 대비 각각 33.8%, 14.8% 감소하였다. 또한 평년 대비 59.6%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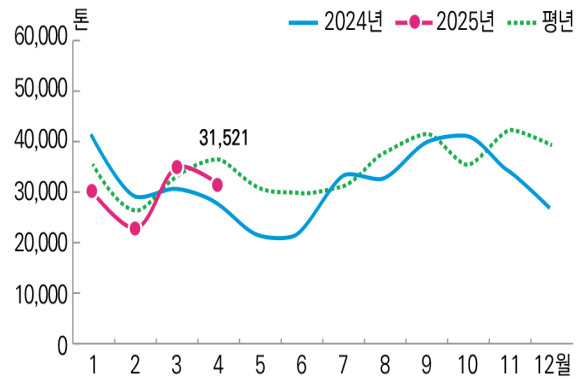
국가와 제품 형태별로 보면, 냉동명태는 중국으로 234톤, 베트남으로 144톤이 수출되었고, 건조명태는 중국으로 435톤, 냉동연육은 태국으로 1,514톤이 수출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37.6% 감소한 1만 9,678톤이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도 9.6% 적은 양이었다. 국가와 제품 형태별로는 미국산 냉동연육이 6,09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연육이 5,268톤, 냉동필렛 2,784톤, 냉동명태 2,482톤 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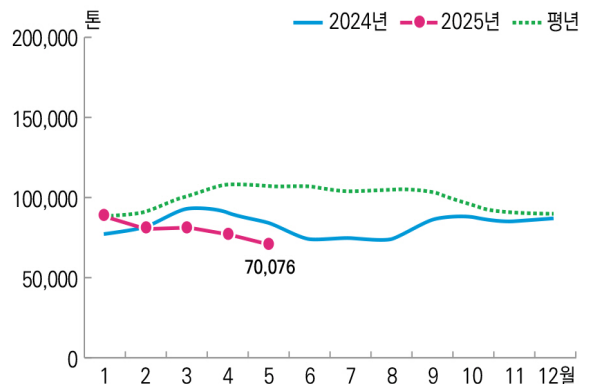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5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5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7만 76톤으로 전월 대비 9.8% 감소하였다. 이는 반입이 종료되었고, 수입도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는 16.6% 적었으며, 평년보다는 34.7% 적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6월호



정부, 美 관세·비관세 대응 협력

美 주요 수산식품 수출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12일(목)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 5.1 출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등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주한미국대사관, 주미대사관 등 외교 채널 활용, 美 통상조치 등 현안발생 신속 대응

** 염전 및 계절근로자 강제노동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체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10% 기본관세(15%p 개별관세 7월 8일까지 유예) 부과 조치 이후 환율 하락*,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환율추이(한국은행): (2025.3.) 1,457원 → (2025.4.) 1,444원(13원 하락, △0.9%)

** 美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 -0.3%, 美 2025년 4월 소비자 물가지수(식품): 2.8%(0.6%↑)

특히,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 말 기준(잠정)으로 조미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증가하였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증가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참치통조림 산업 구조와 한국의 과제

내수 중심형 구조로 공정 자동화와 제품 다양화 필요

참치 통조림 산업의 원료 어획은 WCPFC(51.1%) 및 IOTC(23.4%) 수역에서 집중적으로 확보된다. 주요 생산국은 인도네시아(14.6%), 대만, 에콰도르, 일본, 한국(5.3%) 등이다.

참치 통조림 원료 수출은 대만(19.3%), 스페인(10.2%), 한국(9.3%)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조림 원료 수입은 태국(39.6%)을 중심으로 필리핀, 스페인, 베트남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참치 통조림 완제품 수출은 태국(36.6%), 필리핀(30.6%), 인도네시아(22.0%)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되고, 최대 소비 시장은 미국(61.1%)과 유럽이다. 이와 같이 참치 통조림 산업은 특정 국가와 지역이 생산, 가공, 소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참치 통조림 시장은 연 3.8만 톤 규모이며, 연평균 매출은 약 3,441억 원으로 동원 F&B가

참치 통조림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판매 형태는 기름 담금 살코기 참치 중심으로, 유통은 대형마트(47.7%) 중심이다.

생산, 가공, 소비가 특정 국가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참치 통조림 산업 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획에서 가공, 소비까지 직접하는 내수 중심형 구조이다.

높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자동화 수준의 한계로 동남아 OEM 대비 제조 원가가 높고, 통조림 핵심 공정의 대부분이 수작업에 의존하여 자동화 도입이 제한적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좋고, 이탈리아 등 유럽산 제품은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어, 수입품과 경쟁에 직면해 있다.

* 출처: 수산분야 FTA 소식지, 2025년 4월 30일자

국제기구 활용 방안 - 정일정 참사관

FAO 농무관 출신 정일정 참사관의 제언

1. 국제기구의 주인은 회원국인 우리다. 사무국은 회원국의 방향과 논의 과정을 도와주는 조직이다.
2.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제안을 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이다.
3. 국제기구가 축적한 경험과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국제기구가 오랫동안 연구한 자료를 잘 활용하면 분석과 경험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다.
4. 국제사회 경험을 키우고 교육받을 좋은 기회

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에 근무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국제기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해당 기관의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5.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고급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가 간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다.

* 출처: 세계 식품과 농수산, 2025년 4월 30일자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입 동향 명태·연어·대구 감소, 고등어·참치·오징어 증가

올해 1~3월까지 명태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한 5만 4,300톤으로, 수입액은 지난해 대비 6.0% 감소한 8,7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수입량 중 러시아산은 6.5% 감소한 5만 700톤, 미국산은 42.5% 감소한 2,800톤을 기록하였다.

1분기 고등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1% 증가한 2만 1,300톤으로, 수입액은 지난해 대비 87.1% 증가한 6,0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수입량 중 노르웨이산은 50.0% 증가한 1만 6,500톤, 중국산은 170.0% 증가한 3,200톤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연어 수입량은 전년 동기 17.5% 감소한 1만 2천톤으로, 수입액은 6.7% 감소한 1억 3,68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노르웨이와 칠레산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러시아 및 미국산 수입은 감소하였다.

1분기 대구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한

3,200톤으로, 수입액은 0.7% 감소한 1,21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러시아산은 3.9% 감소한 2,200톤, 미국산은 20.4% 감소한 600톤, 중국산은 54.9% 감소한 400톤을 기록하였다.

1분기 참다랑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6.6% 증가한 2,300톤이며, 수입액은 256.2% 증가한 4,9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탈리아산은 220.7% 증가한 600톤, 모로코산은 1,582.1% 증가한 500톤, 스페인산은 126.2% 증가한 400톤을 기록하였다.

1분기 오징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2만 6,300톤으로, 수입액은 4.6% 감소한 1억 1,1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중국산은 3.9% 감소한 1만 5,300톤, 칠레산은 271.1% 증가한 4,400톤, 멕시코산은 1,800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동향, 2025년 4월 30일자

2024 세계 식량 통계 연감 아국 식량 수입량, 월등히 많고 가격 상승률도 높아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는 89% 상승하여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였다. 세계 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4%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대륙별로 아프리카는 15%, 아시아는 7%, 오세아니아, 3%, 유럽 2%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0년~2022년간 세계 단백질 공급량은 8%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는 14%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대륙별로 유럽의 1인당 하루

단백질 공급량은 112g을 기록했지만, 아프리카는 66g을 기록하였다. 유럽은 대부분의 단백질을 동물성으로 섭취하였고, 아프리카는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였다.

2023년 전 세계 인구의 28.9%(23억 3,000만 명)가 식량 불안(중간+심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중 10.7%에 해당하는 8억 6,410만 명은 심각한 식량 불안에 시달렸다.

* 출처: 2024 세계 식량농업 통계 연감, 2025년 5월